

2014 Asian Games
INCHEON
Candidate City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개최는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우리 인천의 국제적 위상이
서너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개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 후
올림픽을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꿈을 또다시 꿀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겠습니다.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3



아직도 돌아서 다니십니까?

천마터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부천 ↔ 중동IC ↔ 삼산지구 ↔ 부평구청 ↔ 대우자동차 ↔ 백마장 ↔ **천마터널** ↔ 석남동 ↔ 가정동 ↔ 서인천C ↔ 북항 ↔ 청라도 ↔ 영종도 ↔ 인천공항

■백마장4거리 ↔ 석남고가 구간 비교

이용도로	거리	신호등	소요시간	유류비	통행료	계
천마터널	2.3km	2개	2분	334원	700원	1,034원
천마로	4.1km	13개	12분	1,426원	0	1,426원

※배기량 2000cc 연비10km/ℓ 휘발류 승용차 기준 특정일, 특정 시간대에 실측한 자료입니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3 (통권 147호)



표지설명 _ 봄의 전령
개나리 만발한 승학고갯길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3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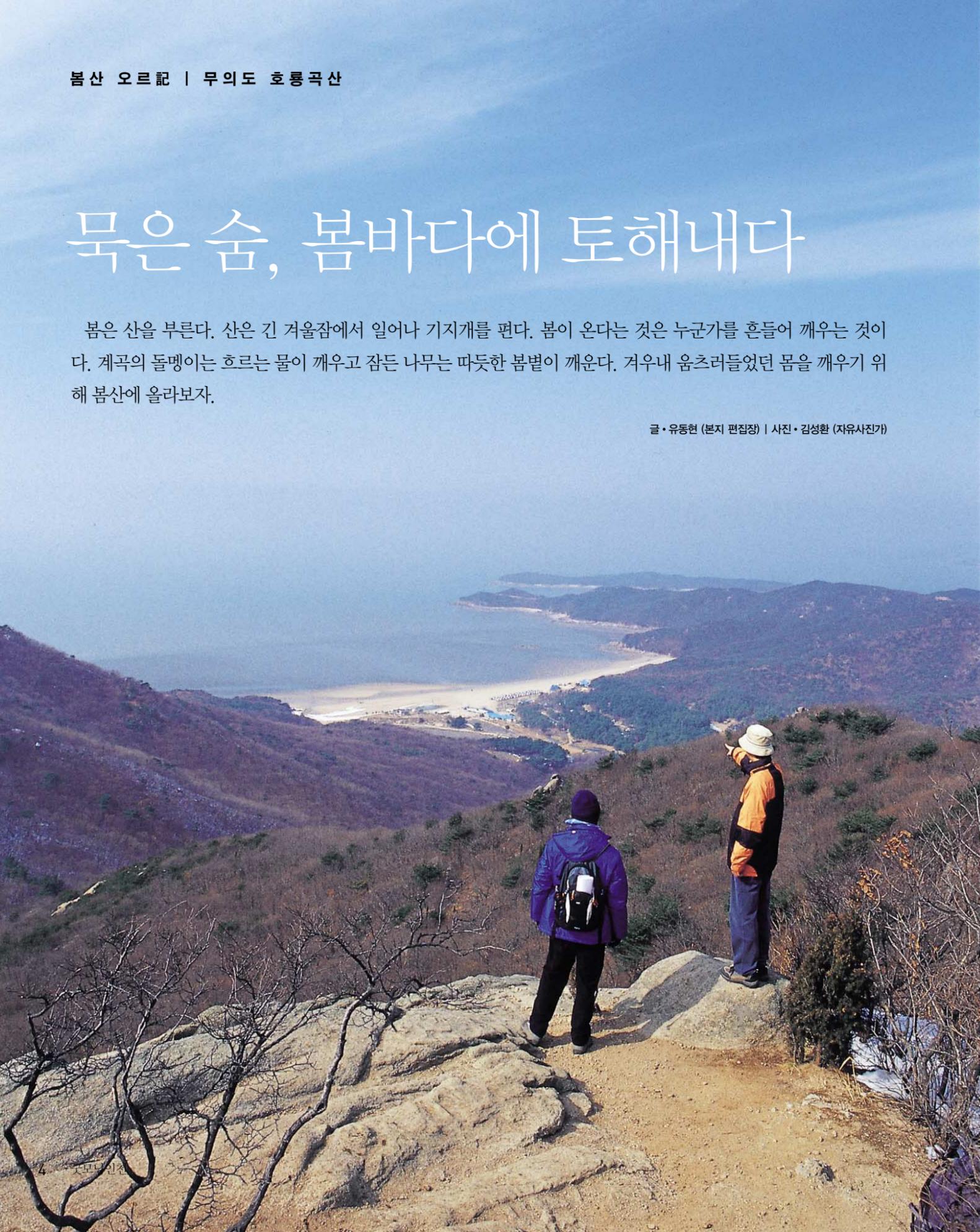
- 04 봄산 오르記 | 무의도 호룡곡산
- 08 포커스① | 연세대, 송도에 새 캠퍼스 건립
- 09 포커스② | 송도국제학교 착공
- 10 선상여행 | 코스모스호 & 하모니호
- 14 조명 | '물의 날' 되짚어 보는 인천 하천살리기
- 18 문화마을 순례 | 바이브무용단
- 20 이달의 공연 | 박규희 초청 기타콘서트 외
- 22 Spring Stage | 봄을 부르는 춤과 음악
- 23 문화시선 | 바다사진관
- 24 정보뱅크 | 전문건강검진센터
- 27 굿모닝時評 | 영화, 문화와 상품의 두 얼굴
- 28 굿인천 굿뉴스 | 151층 쌍둥이 빌딩, 송도 랜드마크로 외
- 32 리포트 | 민자터널
- 36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인천기상대
- 40 인천음식 요리조리 | 물텀방이
- 42 김치 찰칵
- 43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올바른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
- 44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 황어장터의 3·1만세 운동
- 46 참살이 동의보감 | 비만
- 47 아심만만 재테크 |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터빈으로 가는 길'의 시인 천금순 씨
-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다이어트'
- 54 Info Box |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이 집이 운영됩니다 외
- 57 After Deadline | 청소년 댄스 교복페스티벌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寓 | 스파이더맨의 곡예



목은 숨, 봄바다에 토해낸다

봄은 산을 부른다. 산은 긴 겨울잠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편다. 봄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계곡의 돌맹이는 흐르는 물이 깨우고 잠든 나무는 따듯한 봄볕이 깨운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깨우기 위해 봄산에 올라보자.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봄기지가 떠는 섬들

봄은 갯가의 밀물에 실려 온다. 하루라도 먼저 봄을 마중하고 싶은 마음에 섬 산에 오른다. 섬으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스크루 몇 번 회전으로 무의도 큰 무리 선착장에 뱃머리가 닿자마자 여행자는 금세 일상탈출을 꿈꾸며 산으로 향한다.

무의도에는 '서해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호룡곡산(244m)과 국사봉(230m)이 봉긋 솟아 있다. 섬 속의 산은 일반적으로 '해발 0m'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산보다 높게 느껴진다. 두 봉우리를 다 오르기 위해서는 대략 4시간 이상 걸리는 만만치 않은 산행을 해야 한다. 여유롭게 쉬엄 쉬엄 등산을 할 거라면 호룡곡산을 타는 게 좋다. 아기자기한 게 풍치가 좋고 무엇보다 적당히 나지막해서 사람을 찌르거나 겁주지 않는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어느 곳으로 트래킹을 해도 바다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지만 샘꾸미선착장 마을 뒤쪽으로 길을 잡아야 무의도 파노라마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키 작은 노송들이 줄지어 서 있어 제법 산 티를 내는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벌써 왼편으로 바다가 펼쳐지고 동생 섬 소무의도와 무인도 해녀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해무(海霧) 탓인가, 희뿌연 안개에 묻혀 있는 주변 섬들이 신비롭게 보인다.



봄바람에 도심 일상 말려본다

숨이 가빠질 즈음 첫 번째 조망대를 겸한 쉼터가 나온다. 조망대에 서면 아직은 적당히 찬기운을 품은 해풍이 이마에 송글 맺은 땀을 씻어낸다. 납작 엎드린 어촌의 풍경이 정감 있게 내려다보이고 섬 구석구석을 살피며 깨끔발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봄바람이 뺨을 스친다.

바다를 등에 지고 계속 오르자 모든 것이 점차 등산화 아래 머문다. 오솔길, 바윗길, 숲길 등을 오르락내리락하다 산꼭대기 바로 못 미쳐 갈림길 부근에 너럭바위가 하나 나온다. '마당바위'이다. 바위에 올라 바다를 향해 가쁜 숨을 내쉬자 바다도 긴 호흡을 토해낸다.

굵은 동앗줄을 부여잡고 가파르게 오르면 드디어 정상. 사방이 막힘이 없다. 바람은 파도보다 먼저 섬으로 들어와서 나무들 이파리를 쓰다듬고 바다로 되돌아간다. 푸석푸석한 도심의 일상을 산꼭대기까지 올라 온 봄바람에 널어본다.

멀리 팔미도의 하얀 등대가 연필처럼 삐죽 보이고 강화 교동도가 아릿하다. 발아래는 하나개해변의 뽕안 피부가 선명하고 그 뒤편에 '비운의 섬' 실미도가 반쯤 보인다. 흡사 출구는 무희처럼 생겼다는 무의도 자신의 자태도 뚜렷하다. 저기가 허리? 그렇다면 저긴 가슴?



환상 속의 그대...아구리해안이어

이젠 하산 길이다. 하나개 해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약간 후미진 곳에 부처바위가 있다. 수천년의 비바람이 석가모니의 코와 눈 그리고 인자한 미소까지 선명하게 조각했다. 부처바위 앞에는 제례용 상석으로 쓰일 법한 평평한 바위까지 놓여 있어 제법 구색이 맞다. 자신들의 아지트인냥 봄햇살 가득 비추는 바위 앞에서 중년 등산객 부부가 한가롭게 바다를 바라보며 해바라기 하고 있다.

갈림길로 나오자 '환상의 길' 이라고 적혀 있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발걸음을 해안으로 재촉하자 눈높이는 점점 수평선에 맞춰진다. '짜악~'. 해안선에 가까워지자 들리지 않던 파도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과 동시에 입이 절로 열렸다. "우와, 끝내준다." 으레 붙여진 이름인줄 알았던 '환상의 길' 이 이름에 걸맞게 '환상' 을 연출하고 있었다. 기암절벽과 하얀 파도 그리고 푸른 물결... 작은 해금강을 보는 듯하다. 절벽 위 산책로에서 바라본 아구리해안은 무의도의 숨겨진 비경을 등산객에게 피날레 장면으로 보여준다.

산행코스

큰무리선착장 - (마을버스) - 샘꾸미선착장 - 조망대(쉼터) - 마당바위 - 정상 - 부처바위 - 환상의 길 - 하나개해변 - (마을버스) - 큰무리선착장

무의도 가는 법

- ①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을 이용해 영종선착장에 내려 공항남로를 타고 용유방면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거잠포와 잠진도선착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행 여객선(무의해운 751-3354)을 이용하면 큰무리선착장에 도착한다.
- ②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대교를 지나 용유·무의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면 거잠포와 잠진도선착장으로 닿을 수 있다.
- ③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에 갈 수도 있는데 하루 배편이 많은 편이 아니다. 연안부두에서는 차를 배에 실을 수 없다. (우리고속웨리 887-2891)



봄맞이 하기 좋은 인천의 명산 5

고려산 (436m)

강화 읍내에서 5km쯤 떨어져 있는 고려산은 고구려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는 전설을 품고 있다. 산속에 고구려 장수왕 때 창건한 절인 적석사가 있으며 사찰 서쪽 정상으로 오르면 낙조봉이 나온다. 낙조봉에서 바라보는 서해 일몰은 강화8경중 하나로 꼽힌다. 낙조봉정상에는 억새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정상을 따라 20분 정도 걷다보면 솔밭 산림욕장이 있고 그 안에는 지식묘근락지도 있다. 4월초부터 산은 진달래로 온통 불이 붙는다. 매년 이곳에서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산행은 보통 적석사 입구에서 시작하는데 낙조봉 바로 아래까지 승용차로 들어갈 수 있으나 길이 너무 가팔라서 초보운전자들은 길이 다소 위험하다.

산행코스 _ 적석사입구 도로 - 적석사 - 낙조대 - 낙조봉 - 억새밭 - 솔밭 산림욕장 - 고려산 - 적석사입구 도로

혈구산 (466m)

강화도 중심에 위치한 혈구산은 고려산과 고비고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이어져있다. 산세가 부드러운 고려산에 비해 혈구산은 높고 뾰족하면서 굴곡이 있어 힘이 넘친다. 혈구산은 그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산에 오르면 가슴이 벅차고 힘이 저절로 솟구치며 정기가 항상 흘러 넘쳐 살아 숨쉬는 산이다.

고비고개에서 정상에 이르는 능선길은 4개의 봉우리로 이뤄져있으며 첫번째 봉우리를 지나면서 방향이 우측으로 심하게 휘면서 2봉을 만나고 남쪽으로 진행하다 3봉이 된 후 다시 왼쪽으로 휘어지며 4봉인 혈구산 정상부를 만들어 낸다. 각 봉우리 오름길은 매우 가팔라서 숨이 가쁘지만 봉우리 사이마다 능선으로 연결돼 강약이 조화를 이룬다.

산행코스 _ 고비고개 - 1봉 - 2봉 - 3봉 - 4봉(정상) -고비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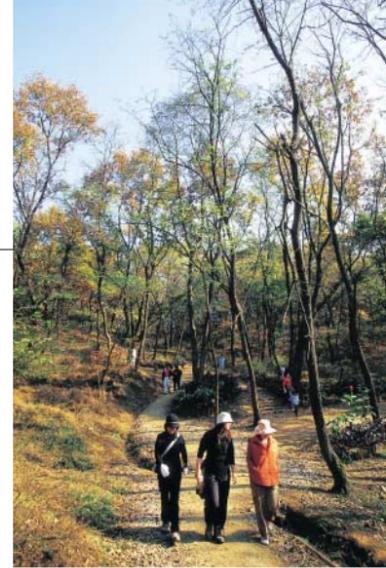
진강산 (443m)

진강산은 강화도 중남부지역인 혈구산과 마리산(마니산)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낮은 산이지만 정상과 능선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에 가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남쪽으로 마리산이, 서쪽으로 석모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정상 남쪽편으로 주등산로가 펼쳐져 있는데 양도농협과 삼별초식당 사이로 이어지는 부대진입로를 통한 산성터와 345봉(헬기장)을 거쳐 정상을 밟는 코스가 초행길 산행객에게 적당하다.

하산코스로는 정상에서 정남향으로 뾰은 능선과, 동서쪽으로 길게 뾰은 가톨릭대학교쪽 능선이 있다. 정남향으로 뾰은 능선은 서쪽편이 바위절벽지대여서 전망이 뛰어나다.

산행코스

<제1코스> 삼별초식당 앞 - 부대정문(우측으로) - 산성터 - 삼각점 - 345봉(헬기장) - 정상 - 남릉 - 계명원 옆 도로변
<제2코스> 삼별초식당 앞 - 부대정문(우측으로) - 산성터 - 삼각점 - 345봉(헬기장) - 정상 - 동릉 - 도장삼거리(또는 길정리 방면)



해명산 (327m)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가운데 있는 해명산은 산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산이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듬뿍 받으며 산행을 할 수 있으며 산세가 아기자기해 가족등반 산행지로 적당하다. 석모도로 가는 카페리에 승용차를 싣고 갈 수 있지만 해명산과 낙가산을 잇는 능선중주를 하려면 승용차를 외포리에 주차시키고 석모도로 향하는 게 낫다. 보문사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가다 해명산 산행 기점인 진득이고개에서 하차해 고개에서 서북쪽 능선을 타고 20분쯤 오르면 해명산 정상이다.

바다를 보면서 군데군데 피어있는 진달래 능선을 따라 낙가산으로 갈 때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능선 오르내리길 1시간 가량 타면, 갑자기 시방이 탁 트이면서 삼각점 표시가 있는 낙가산 정상에 나타난다. 산정상에 서면 강화도 마니산과 매음리 염전, 주문도가 보이며 능선에는 회백색 넓적바위인 천인대가 펼쳐져 있다.

낙가산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서면 눈썹바위로 향하게 된다. 눈썹바위에서 3백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보문사 경내이다.

산행코스 _ 석모도 석포리 부두 - 진득이고개 - 해명산 - 308.9봉 - 310봉 - 방개고개 - 270봉 - 새가리고개 - 250봉 - 230봉 -삿갓바위 직전 좌측길 - 낙가산 - 삿갓바위 직전 좌측길 - 마애불 - 보문사 - 주차장

백운산 (256m)

아침, 저녁으로 구름과 안개가 자욱이 끼고 석양에 비치는 오색구름이 산봉우리에 머물 때면 선녀들이 내려와 약수를 마시며 놀고 간다는 백운산은 영종도에 자리 잡고 있다. 산 중턱에는 사찰 용궁사가 있다. 절까지 들어가는 길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운치가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신도, 장봉도, 무의도 등 인천 앞 바다에 흠뻑 젖어 있는 무수한 섬을 바라볼 수 있다. 봄이면 산철쭉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다.

산행코스 _ 중구농협(중구 영종출장소앞) - 용궁사 - 쉼터 - 정상 - 남동릉 - 도로변 - 중구농협(중구 영종출장소앞)



2010년, 신촌 독수리 송도에 날다



사학의 명문 연세대학교(총장 정창영)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내에 연세대학교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발표했다. 이로써 동북아 허브도시와 글로벌 교육·연구의 허브대학이 함께 발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



연세대는 지난 1월 26일 우리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화 복합단지는 송도 5·7공구 중 28만평과 11공구 중 27만평 등 총 55만평을 두 단계로 나누어 건립될 예정이다. 이 부지에 강의관, 연구관, 기숙사, 체육관, 교직원 주거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을 건립해 한국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1단계 사업은 현재 신입생 입학 후 2학년 전공선택 이전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대학을 송도복합단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미국 아이비리그와 같이 교육시설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레지던스 칼리지(Residence College)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입생 전원이 송도 새 캠퍼스의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숙사에서 국내학생과 외국인 재학생이 함께 영어 및 국제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외국어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첨단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제화 복합단지내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들과 그 가족들이 언어소통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국제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에 필요한 행정, 의료 및 기타 복지 서비스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제공되며 도시 운영을 연세대가 직접 관장하는 친환경적 소규모 자치지구가 될 예정이다. 주거시설 외에도 쇼핑몰, 영화관, 체육시설, 호텔 등이 건립되어 송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

201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11공구 27만평 대지위에 정보통신, 생명, 환경, 나노, 의생명분야의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Science Park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이공계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보다 다원화하고 1000~2000명 가량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100% 영어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국제학부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중심이 되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는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복합연구단지 조성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밖에도 2단계 캠퍼스 조성에는 한국어학당과 대학원 외국어학당 등 외국대학을 유치해 국제화 캠퍼스로 꾸밀 예정이다.

지난해 개교 120주년을 맞은 연세대는 설립자 언더우드가 19세기 말 처음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장소인 인천(제물포)에서 앞으로 120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_ 연세대학교 홍보과 (02-2123-2072)

송도, 동북아 학문허브로 뜬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송도국제도시 1만 5천여 평 부지 위에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송도국제학교(New Songdo City International School: 이하 NSCIS)를 건설해 최첨단 과학시설을 갖춘 교육환경과 선진교육 기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NSCIS는 한국주재 학생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를 상용화 한 비영리 학교로, 예비유치원에서부터 대학입학 준비과정까지 총 12학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최고의 사립 교육기관에 버금가는 교과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NSCIS의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최고(最古)의 교육 인증기관인 뉴잉글랜드학교 및 대학협회(NEASC), 유럽에 소재한 국제학교위원회(CIS) 및 국제학위협회(IBC)를 통해 국제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또 타 국제명문교로부터 전입 및 전학이 가능하며 명문대학교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국제학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학교들과 마찬가지로 NSCIS는 독립교육기관으로서 국내외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학부모, 정부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을 운영에 참여 시킬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과 국제교육협회 대표, 임원 등을 맡고 있는 해외 저명 교육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세계 선진국 수준의 최신 학습방법을 협조받을 예정이다. NSCIS의 운영은 검증된 외국학교 운영자가 담당하게 되는데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미 동부 명문사립학교 밀튼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NSCIS의 수업은 세계 각 국에서 채용된 전문 교사진에 의해 진행 될 예정이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균 교사 1명 당 학생 10명의 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교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예·체능, 문화, 교육시설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수업료는 동북아시아의 유명 국제학교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영국 노드앵글리아교육그룹 산하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도 최근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에 48개 학급 규모로 영종지구 운북레저단지내 국제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3월 8일 송도국제학교를 송도국제도시에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2,100명 수용 규모의 NSCIS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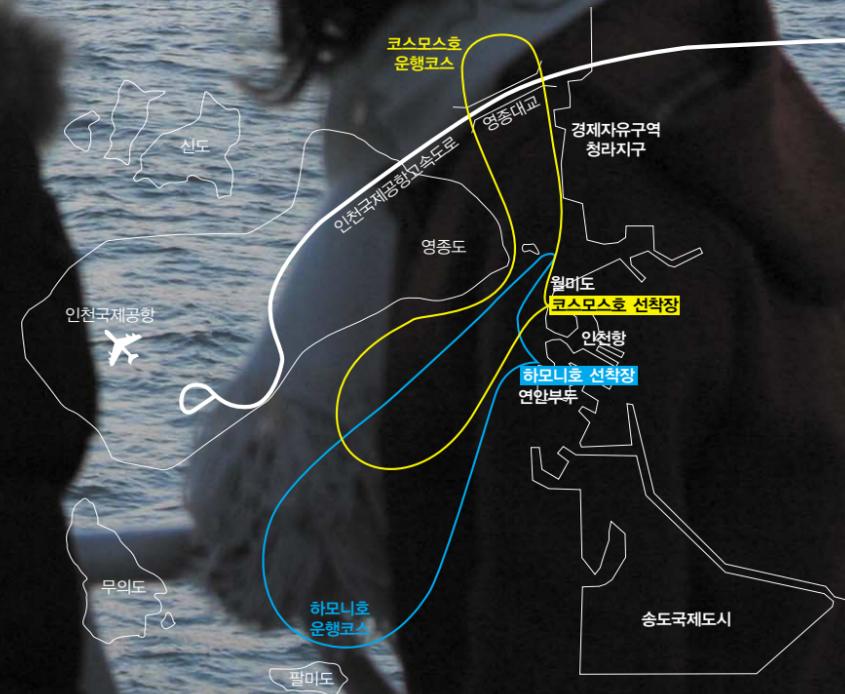
자료제공 _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사업개발자 (02-6260-3344)

‘두둥실~’

배도 뜨고 마음도 뜨는 앞바다 유람 여행

봄기운 사랑살랑 묻어오는 늦은 오후,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치를 누려본다.
상큼한 바닷바람에 몸을 실어 바다 한 가운데로 두둥실 떠가보자.
몸만 떠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떠가는 걸 느낄게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달 꼬리 잡고 선상에 몸을 싣는다

월미도 코스모스호

월미도에 갈 때마다 무심히 지나쳤던 오색 유람선. 호사스런 걸치장 뿐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유람선답게 배안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1천5백톤, 4층 규모로 95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코스모스호는 하루 4~5번씩 인천앞바다를 운행하고 있다.

노을이 지구 한바퀴를 돌고 월미도 앞바다에 하루의 여독을 붉게 풀어낼 즈음 유람선에 몸을 실어보자. 인천 앞바다에서 월미도 해안과 내륙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코스모스호가 월미도선착장을 떠나는 동시에 유람선 안에서는 여행객들을 위해 행복한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1층에서는 러시아 무용단과 스페인무용단, 중국 요녕성 기예단 등의 열정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2층에서는 수준급 필리핀 밴드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라이브 선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음식으로 한국노래도 들을 수 있다. 조용한 분위기의 음악에 차 한잔과 간식을 먹을 수 있는데 특히 일본식 가쓰오 우동을 선상에서 맛볼 수 있어 이색적이다.

공연에만 폭 빠져서 갑판위의 환상적인 풍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월미도를 출발한 코스모스호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뒤로하고 경인에너지와 화력발전소를 지나 영종대교를 조망한 후 작약도를 지나 약 1시간 20분 동안 운항을 마친 후 다시 월미도로 입항한다. 일몰이

시작할 때 떠난 배가 돌아올 쯤이면 반짝거리는 월미도의 야경을 배경으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월미도 유람선은 최근에 많이 알려지면

서 연인과 가족은 물론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기 코스로 꼽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결혼식, 송년모임, 친목회, 동창회, 각종 세미나와 가족모임을 선상에서 열 수 있어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그밖에도... 월미도 주변에는 놀이공원과 이색적인 카페들이 모여 있으며 조금만 발품을 팔면 월미공원에 마련된 전망대에 올라가 볼 수 있다. 조금 더 이동한다면 북성동 차이나타운과 한중문화관, 자유공원 등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선착장 찾아오는 길



운항시간 _ 12:00, 14:00, 16:00, 18:00 (하절기 20:00)
요금 _ 어른 13,000원, 5세~초등학생 7,000원
문의 _ (주)인천해양관광페리 코스모스유람선
 (764-1171, <http://www.cosmoscruise.co.kr>)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연안부두 하모니호

유람선을 타고 바다 한복판에 떠 있으면 사람보다 바다가 더 흥이 난다. 파도가 선체(船體)에 애무를 할 때마다 덩달아 몸도 마음도 들떠서 출렁인다. 봄바람이 시키는 줄 알았건만 바다가 바람에게 그렇게 하라 한다. 바람이 바다의 시녀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된다. 이리로 흔들, 저리로 흔들... 바다가 하리는 대로 1시간 남짓 출렁이다보면 어느새 유람객들도 바다의 노예가 된다.

연안부두에서 떠나는 선상여행은 서울의 한강이나 파리의 센스 강변을 오가는 유람선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작은 섬들을 허락하는 인천앞바다의 넉넉함에 반할 것이다. 선상에서는 눈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화폭이고 시(詩)이며 노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부끄러울 정도로 경이롭다.

지난해 3월부터 연안부두를 떠나기 시작한 하모니호는 17노트로 달리기 때문에 속도감도 있고 짧은 시간에 멀리까지 돌아보고 올 수 있다. 송도 국제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이로운 세계 10대 프로젝트'로 뽑힌 인천대교가 얼마나 건설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혹여나 배멀미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17년 동안 애마처럼 이 유람선을 운항해온 현경식 캡틴이 능숙한 솜씨로 하모니호를 이끈다.

세계 각국의 전통무용과 공연은 물론, 하모니호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특혜는 싱싱한 해물 뷔페가 마련되는 디너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외국인의 크루즈여행을 우리시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유람선 여행의 백미는 갈매기 떼에 과자 던져주기가 아닐까? 누가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데 갈매기들은 날아가는 먹잇감을 잘도 채간다.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그밖에도... 선착장 부근의 연안부두 회센터에서 맛보는 밴댕이 회가 일품이다. 운이 좋으면 인근 친수공원에서 주말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다. 음악분수대와 아이들을 위한 조류 관찰장도 마련돼 있다. 또 국내 최대 어시장인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싱싱한 횡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선착장 찾아오는 길 _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부근



운항시간 _ 11:30, 13:30, 15:00, 16:30
 (절기에 따라 시간이 조정되므로 문의 요함)
요금 _ 기본 이용시 - 어른 13,000원, 어린이 6,000원
 디너크루즈 이용시 - 25,000원~38,000원
문의 _ (주)현대유람선 하모니호
 (882-5555, <http://www.partyboat.co.kr>)

‘물의 날’ 되짚어 보는 인천 하천살리기

반딧불이, 참게랑 냇가에서 놀아요

청계천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왜 우리 인천에는 이런 하천 하나 없을까 아쉬움이 많았을 터이다.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다. 청계천 복원에 못지않은, 아니, 청계천처럼 인공적으로 꾸며내 질게 화장한 도시 처녀의 화려함이 아니라 분을 바른 듯 바르지 않은 듯, 수줍은 소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하천이 꿈틀꿈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리시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공촌천, 장수천, 굴포천, 승기천, 나진포천 등 다섯 개의 하천이 머지않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하천 살리기는 깨끗한 하천을 가꾸는데서 시작된다

살아 숨쉬는 강을 꿈꾼다

지형의 특성상 큰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인천에는 30여개의 하천이 있다. 17.6km에 달하는 굴포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10km 미만의 소규모 하천이다. 5~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아담한 냇가에서 떡 감고 물고기를 잡았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등의 개발논리에 밀려 하천은 콘크리트로 덮여지기도 하고, 인공적인 복토작업으로 물길이 끊기기도 했으며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와 수질이 악화됐다. 게다가 쓰레기가 많아지다 보니 점점 물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오염이 심해져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맑은 물 흐르는 강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죽어가는 하천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냇강 살리기 운동이나 자연형 하천 복원운동 등을 통해 하천의 옛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시는 하천살리기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천을 복원해야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하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인공적으로 하천을 되살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천이 아니라면 다시 하천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께 해요, 민·관 파트너십

1998년부터 승기천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천을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인천의제21 물생태도시계획 분과에서 인천하천사랑운동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고 승기천사랑모임(승사모)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윽고 2003년 3월에는 제11회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승기천에서 개최하고 하천 오염정화 활동을 통해 하천살리기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듯 무르익은 분위기를 기반으로 우리시는 지난 2003년 9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하천을 살리기 위해 시민과 기업,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각 하천별 특성과 지역 정서에 맞는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하천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렇듯 하천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의 의견을 모아 하천살리기를 진행하다보니 추진 속도가 좀 늦어져 애를 태웠다. 또 주민참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원 과정을 데이터화 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인천에서 하천이 살아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2년여에 걸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 정서에도 맞는 하천별 테마가 결정되고 복원 방향도 정해지기에 이르렀다.



하천 정화 활동으로 '자연형 하천 복원의 기틀을 놓는다'



하천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1굴포천 2공촌천 3승기천 4장수천

하천별 테마, 4천(川)4색(色)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를 흐르는 승기천은 넓은 고수부지를 가지고 있다. 물을 맑게 하고 고수부지를 잘 정비하면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심지에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을 테마로 했다.

부평구 청천동에서 계양구 하야동 사이를 흐르는 굴포천은 길이 17.6km로 인천에서는 가장 긴 하천에 속한다. 하지만 굴포천에는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그곳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

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자연과 이야기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테마를 정했다.

남동구 장수동의 인천대공원과 서창동 사이를 흐르는 장수천은 우리 인천에서 유일하게 생태계가 살아나고 참게가 외출 나오는 하천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테마도 '반딧불이가 사는 하천' 등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촌천 네트워크는 '창포 꽃 하늘거리는 하천'으로 테마를 정했다. 공촌천이 살아있는 자연하천이라는 생동감을 주기 위해 하천 주변에 지난 2003년 노란 창포 꽃을 심었다. 창포 꽃 덕분에 공촌천은 살아 숨쉬는 하천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에서 김포시계 구간을 지나는 나진포천은 중간에 자연형 하천이 포함돼 있어 농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해 테마를 정하지 못했지만 농수로의 역할도 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함께 하천살리기 추진단에서는 하천아카데미를 운

영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하천과 관련한 교육, 그리고 실천 활동을 통해 하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시민들이 참여해 하천을 살리자는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아울러 미래 하천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5개 하천에 대한 탐사활동을 통해 인천의 하천을 바로 알 수 있게 돕는 한편 하천일주를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천살리기 글짓기 및 그림대회, 하천 사진 공모전 등을 열어 우리 지역 하천의 소중함과 하천살리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려는 우리시의 노력은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돼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시의 하천이 살아나는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오는 5월에는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이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승기천과 장수천은 오는 10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해 200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차한잔 | 최계운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 추진단 공동 단장

“네 개의 청계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청계천이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엔 청계천 하나지만 인천에는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네 개나 되는 하천이 곧 흐르게 될거니까요.” 인천대학교 이공관에서 만난 하천살리기추진단 공동 단장인 최계운 교수(인천대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는 밝은 표정으로 인천하천살리기의 미래를 이야기 한다.

“우리 인천의 하천은 시민들과 함께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흐르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하천살리기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이나 양재천이 성공적인 복원으로 주목을 받지만 행정의 힘만으로 복원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공촌천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창포를 심었기 때문에 행여 장마에 떠내려 갈 새라, 주위에 쓰레기를 버릴 새라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하고 관리하며 가꿔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천처럼 민·관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하천을 복원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귀감이 되고 있다. 3월에 멕시코에서 열릴 세계 물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를 통한 하천살리기의 사례로 우리 인천의 하천살리기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촌천에서는 창포가 하늘거릴 것이고, 장수천엔 반딧불이가 돌아오고, 굴포천에서는 연인들이 강가를 따라 데이트를 즐기며, 승기천에서는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게 될 것입니다.” 확신에 찬 최교수의 설명처럼 인천의 하천이 봄기운처럼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세계무용의 실험이 되리라 바이브무용단



오늘도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간다.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도, 봄이 몸을 푸는 움직임도 그 바쁜 몸놀림에는 모두 묻혀 버린다. 그러나 춤을 추는 사람들은 멈춰 서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으로 그 형태를 표현해서 '춤'을 탄생시킨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입춘이 지나자 흥역을 치르듯 뒤늦게 흰 눈이 소복이 내렸다. 물러가는 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느끼면서 부평의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바이브무용단 연습실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단원들을 지도하는 단장 김희진씨의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S자로 그리는 것 같이”

“손끝이랑 시선이랑 같이”

자신의 몸을 의도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동작을 반복하는 단원들 곁을 잠시 떠나서 그녀는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바이브 무용단의 역사부터 풀어나갔다. 김 단장은 이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주로 서울 무대에서 춤을 추었다.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단원으로 활동하다가 98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무용단을 창단하면서 무대를 인천으로 옮겼다. 인천에 터를 잡은 이유는 텃줄을 묻은 고향이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인천을 토대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싶어서였다.

무용단 이름 바이브(VIBE · Visual Invigorating Bold Experimental)의 의미는 '흥겹게 즐긴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실험적'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작품 주제 역시 그 틀에서 창작된다.



바이브 무용단은 창단 이래 해마다 서너 차례씩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인천 대표로 전국 무용제에 참가해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이라는 자부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개인이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에는 무엇보다도 단원 확보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정으로 키운 단원들이 무용가로서의 고단한 삶을 포기하고 학원 운영이나 대학원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결혼과 함께 춤을 그만둘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현대무용은 몸의 근육이 드러나면서 그 움직임의 방향에 에너지가 전해지는 춤인데, 의상이나 색깔의 단순함 속에서 몸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예술이다. 독무보다는 군무가 만들어내는 형태가 더 아름다운 춤이 바로 현대무용인데 단원확보가 어려워져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아쉬워 했다. 현재는 8명~10명의 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입단원을 뽑을 때는 1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한 뒤에 단원으로 받아들인다.

김희진씨는 힘든 상황 속에서 무용단을 이끌어 가면서도 현대무용의 매력을 말할 때는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작품의 소재는 주로 생활속에서 찾고, 춤으로 내면의 세계를 연결 지어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재미있고 기쁘다고 했다. 지난해에 무대에 올린 '나무가 부르는 노래'도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표현주의 무용을 좋아한다는 김희진씨는 '무용이란 무용가의 내적 경험을 표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독일의 선구적인 무용수 마리 뷔그만를 닮아 가고 있었다.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이브무용단의 창단 멤버인 손소영씨를 만났다. 그녀는 지금까지 무용단에 소속되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힘을 김 단장 춤에 대한 생각에 공감하고, 또 무용가로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던 점에서 찾았다. 김희진 단장의 교육 방법은 엄했다. 일주일에 3~4번 있는 연습시간에는 오직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간혹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프면 여지없이 불호령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춤을

추면서 느끼는 고민을 들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 작품을 창작할 때는 함께 안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제자들을 키워준다고 한다.

바이브무용단의 올해 계획은 공연 횟수를 줄이면서 무게가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 또 서울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춤이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과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만큼 어떻게 알리는 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작품이 바이브무용단에서 탄생되어 관객과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현대무용의 대모 피나 바우쉬의 '뭘 봐야 하는 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연장에 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떠올려 보며 연습 열기로 후끈해진 연습실을 나섰다. ☀



막상막下

이탈의 공연



박규희 초청 기타콘서트

'클래식 기타의 신동'이라 불리는 박규희가 아지랑이와 함께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인천에 울린다. 박규희는 일찍이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 합격 리사이틀을 여는 등 어려서부터 기타에 재능을 보여 200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이후 동경국제기타콩쿨 3위,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에서 열린 LIGITA 국제기타콩쿨 3위에 입상하는 등 세계 기타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는 지휘자 Seiji Ozawa에 의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연주투어에 기타연주자로 참가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Villa-Lobos의 Etude No.6을 비롯해 Schmidt의 Try to Remember 등을 연주한다. 기타리스트 고익석의 게스트 독주도 있다.

일시 _ 3월 18일(토)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20,000 / A석 10,000
문의 _ 777-7829 (www.wowguitar.com)

2006 김정훈 콘서트 My profile

김정훈은 지난 5년간 준비하고 공연했던 최고의 장면만을 모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이며 이번 콘서트 타이틀을 '마이 프로파일'로 정했다. 사상 최대의 스케일과 화려한 공연으로 항상 신기록에 도전하는 그는 이번 무대에서도 독특한 캐릭터와 기발한 발상에서 나온



연출력을 바탕으로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사노라면' '오페라' 등과 더불어 드라마 '이탈랜드'의 주제곡 '그대로 있어 주면 돼' 등을 들려줘 애절하고 파워풀한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일시 _ 3월 26일(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가족뮤지컬 피터팬

극단 빛누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터팬'을 가족뮤지컬로 꾸며 가족 모두를 상상의 나라로 인도한다. 어느 날 밤 상상의 섬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이 웬디를 찾아온다. 웬디는 동생들과 함께 피터팬을 따라 꿈과 환상이 가득 찬 네버랜드로 간다. 네버랜드에서 웬디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깨우쳐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아이들을 뚫이 든 케익으로 유혹해서 죽이려 한다.

일시 _ 3월 23일(목) 오전 10시10분, 11시20분 (2회 공연)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새리제홀(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2,000원 / 학생 6,000원 / 단체 4,000원
문의 _ 극단 빛누리 (02-742-9901)

프랑스 클래식 Trio Quark 공연

1983년도에 개관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고자 만들어진 교육 기관으로 138개국에 1135개의 지부가 있다.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지난 2003년 인하대학교 내에 개관했다. 인천프랑스문화원에서

는 피아노-바이올린-클라리넷으로 이뤄진 프랑스 트리오 Trio Quark 초청 콘서트를 연다. 피아니스트 마누엘 슈바이제르, 바이올리니스트 기엘리싸에르, 클라리네티스트 리샤르 말블랑이 드뷔시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등을 연주한다.

일시 _ 3월 3일(금) 오후 7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문의 _ 인천프랑스문화원 (860-8034)

소명 사랑에콘서트

소명은 인천출신 가수이다. 기존의 트로 가수들과는 달리 '퓨전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는 신선한 멜로디와 신뜻한 가사로 앨범을 만들어 콘서트 위주로 활동하는 가수다. 이번이 여덟번째 공연으로, 공연마다 특이한 컨셉으로 보는 이들에게 항상 새로운 느낌을 선사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빠이빠이아」, 「살아봐」, 「인연」 등 지금까지 발표된 10여곡과 함께 팝,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인다. 조경훈과 음악친구들이 악단으로 참여하며 최석준, 한서경이 게스트로 자리를 빛내고 유현상, 이진관, 전철, 전승희 등이 함께 연주하는 점 콘서트도 마련된다.

일시 _ 3월 9일(목) 오후 3시,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0,000 / S석 20,000
문의 _ 한국가요작가협회인천지부 (461-1181)



3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7	8	9	10	11	12
15	16	22	23	24	25	26
29	30	31	31	31	4.1	2

한중문화관 (화석전시회)
 화석특별전이 중구 차이나타운 부근에 있는 한중문화관 전시실에서 4월16일까지 열린다. 전시회에는 고생대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화석부터 중생대 공룡알, 파충류 화석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문의 _ 760-7860)

제3회 인천난명품전
 3월10일~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양전시실)

김보섭 사진전 '바다사진관'
 3월17일~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7회 인터넷서예문인회전
 3월17일~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소·중앙전시실)

제7회 미추홀서예협회전
 3월24일~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2 인천오페라합창단 창단2주회 (새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2만원, 1만원
 인천음악문화원 / 429-0248

3 프랑스 클래식 Trio Quark 공연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1만원
 인천프랑스문화원 860-8034

4 김수희 자선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인천시민자선봉사회 429-9500

5 가족뮤지컬 (아범사 친구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1만2천원
 꼬마세상 572-4281

6 인천심포니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봄의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7천원,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7 소명 사랑에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7시
 3만원, 2만원
 한국가요작가협회인천지부 461-1181

8 부활08합창단 창단20주년기념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무료
 부활08합창단 547-4972

9 소명 사랑에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7시
 3만원, 2만원
 한국가요작가협회인천지부 461-1181

10 화인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7시
 3만18천, 2만18천
 pride of GAG / 328-9872

11 2006 이미자 호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7시
 5만원, 4만원
 앤엔터테인먼트 / 818-5665

12 가족뮤지컬 (아범사 친구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4시
 1만2천원
 꼬마세상 / 572-4281

17 화인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화인오케스트라 258-8225

18 2006 그그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7시
 3만18천, 2만18천
 pride of GAG / 328-9872

19 박규희 초청 기타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1만원
 디서던키타 / 02-730-9693

20 2006 이미자 호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7시
 5만원, 4만원
 앤엔터테인먼트 / 818-5665

21 가족뮤지컬 (아범사 친구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2시·4시
 1만2천원
 꼬마세상 / 572-4281

22 인천심포니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봄의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1만원,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816-7257

23 시립교향악단 제267회 정기연주회 (새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7천원,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24 가족뮤지컬 (컬리버여행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0시·11시10분
 1만원, 8천원
 두부기획 02-2654-6854

25 가족뮤지컬 (컬리버여행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1만원, 8천원
 두부기획 / 02-2654-6854

26 가족뮤지컬 (컬리버여행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1만원, 8천원
 두부기획 / 02-2654-6854

27 김보섭 사진전 '바다사진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8 제7회 인터넷서예문인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소·중앙전시실

29 시립무용단 제59회 춤마당·춤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원
 420-2788

30 스포르노 이경은 독창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1만원, 2만원
 561-2399

31 인문스튜디오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등인교육사 / 888-0808

4.1 시립무용단 창단25주년 특별기념 축하공연
 <우리소리와 춤의 어울림>
 오후 5시
 1만원, 5천원
 시립무용단 420-2788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봄을 부르는 춤과 음악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67회 정기연주회 『새봄음악회』



객원지휘자 오ம்ப리오 마리노

새봄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올 첫 무대를 제267회 정기연주회 겸 '새봄음악회'로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서곡 '코리올란' 작품62,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교향곡 내림마장조 K.364 그리고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가단조 작품.56을 들려준다.

이탈리아 피사의 베르디극장에서 주최한 국제 지휘콩쿨에서 1위를 수상하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지휘자로 떠오른 오ம்ப리오 마리노가 지휘봉을 친다. 현재 총신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며 연세심포니에타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과 경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 한국페스티벌양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박성희가 협연한다.

일시 _ 3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문의 _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한국춤을 대표하는 Big 5 스타전

인천시립무용단은 제59회 춤마당 흥마당을 '한국춤을 대표하는 Big 5 스타전'으로 진행한다. 국수호, 배정혜, 정재만, 김매자, 이광수와 노름마치 등 한국 무용을 대표하는 대가들을 초청해 풍물을 포함한 전통춤부터 창작춤에 이르기까지 우리 춤의 근대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_ 3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전석 1만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인천시립무용단
2006 우리소리와 춤의 어울림

인천시립무용단은 창단 25주년기념 제57회 정기공연을 '2006 우리 소리와 춤의 어울림'이라는 타이틀로 꾸민다. 25주년창단기념 축하공연의 흥을 돋우고 한국전통문화의 깊이 있는 예술성과 멋스러움을 펼쳐게 될 이번 공연에는 국내 유수의 공연팀을 초청해 국악과 회화(크로키), 판소리와와의 만남 등 화려한 레퍼토리로 한 차원 높은 한국공연예술의 진수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1부는 그림굿, 서곡, 작법과 범패무(바라춤, 법고, 나비춤), 부채춤, 살풀이춤, 국악가요, 천동소리(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2부는 장구춤, 진주교방굿거리춤, 태평무, 두드리라 등 총100여명의 출연진으로 이뤄진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연출한다.
일시 _ 3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4월 1일(토) 오후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만원 / S석 5천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공장굴뚝과 갯벌...그리고 토박한 미소 바다사진관

3월 17일(금) ~ 23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3월 29일(수) ~ 4월 4일(화) 서울 인사아트센터 3층

사진작가 김보섭의 '바다사진관' 작업은 1998년 작업실을 연수동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연수동은 갯벌을 메워서 만든 도시이다. 예전에는 물때에 맞춰 소달구지를 타고 나가 조개를 캐던 갯벌이었으나 삶의 형태가 바뀌어 따라 자연의 형태도 바뀐 것이다. 인천이 고향인 그는 끈으로 묶은 장화를 신고, 고무 함지박을 끌고 다니며 열심히 조개를 캐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기억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김보섭은 우연한 기회에 만석동과 화수동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과 진흙으로 뒤덮인 곳, 이북 피난민들이 정착해 굴과 조개 캐는 생활이 계속되는 곳, 아직도 기차길 옆 판잣집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들과 다닥다닥 붙은 굴가는 '굴막' 등 사라져가는 인천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바다사진관'의 시작은 연수동이었지만 그가 진실로 느낀 인천 바다의 시작은 만석동과 화수동을 보고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성부두는 얼마 전까지 김장 때면 우리의 어머니들이 공장과 공장 사이로 함지박을 이고 새우젓을 사러 가고 아이들이 게 잡고 수영을 하던 곳으로 지금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조그만 부둣가에 배들이 들어올 땐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반짝시장을 이룬다. 부둣가에 물이 차지 않아 배가 갯고랑에 걸려 있으면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걸쳐놓고 사람들은 배로 올라가 물고기 값을 즉석에서 흥정한다. 그나마 봄, 가을 뿐 겨울은 그저 쓸쓸한 부두일 뿐이다.

'바다사진관'은 인천의 상징 같은 대성목재의 연기 나는 굴뚝과 갯벌을 배경삼아 그 부두에 김보섭만의 상상의 사진관을 연 것이다. 엄마 등에 업힌 아이, 할머니와 딸은 손녀, 거칠게 생긴 사람들, 새우젓 사러 배낭 메고 나온 동네아줌마들, 비오는 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아줌마, 웃는 할머니와 인상 쓰는 할아버지... 그들을 찍는 순간 그는 마냥 행복했다. ✨



사후약방문을 할까? 사전건강검진을 할까?

계절이 바뀌면 운동계획을 세우고 식이요법 등 건강을 위해 다양한 각오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먼저 살펴볼아야 할 일이 바로 현재 내 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 특히 봄이 되면 긴 겨울 동안 적응했던 우리의 몸이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기도 한다. 봄을 맞을 준비를 위해 우리 몸부터 점검해보자.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나만의 건강검진 전문주치의 한국건강관리협회

흔히 '건강검진'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몸의 어딘가가 의심스러울 때 받아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평소 내 몸에 관심이 없다가도 주변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받아보게 된다.

몸에 이상징후가 없어도 40세 이상이 되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검진을 받아보아야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종합검진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1년~2005년 동안 '종합건강검진 불만 유형'을 조사한 결과 35%가 검진비용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만 받더라도 병원에서는 30만원~50만원의 비용이 드니 그럴 만도 하다.

이젠 그런 부담을 줄여도 되겠다. 40여년의 건강검진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돼 보통 70여종의 기본적인 종합검진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병원에 비해 40% 이상 저렴하다. 검사항목은 대소변, 혈액, 심전도, 호흡기능 검사 등 여타의 병원에서 받는 검진항목과 차이가 없다. 남자의 경우 전립선, 간암검사를 포함해 17만원 선이며 여자의



경우는 자궁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 검사를 포함해 19만원 선이다. 특히 만65세 이상의 효도 종합검진의 경우 추가로 20% 할인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에 굳이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부지런히 낸 만큼 그 혜택을 톡톡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일반의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병원 냄새와 분위기에 주눅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병이 없던 사람도 병원만 가면 아픈 것 같은 심리까지 생긴다. 하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는 일반 병원과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다르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안내로 편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탓인지 건강증진센터(인천지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해만도 3만5천여명에 달한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장비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검진으로 2~3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 검사결과가 나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독을 들을 수 있다.

예약은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이를 후 직접 받아보거나 1주일 후에 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며 밤 10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한다. 또 검진 당일엔 식사는 물론 물도 먹지 않아야 한다.

문의 _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인천지부
(884-7131~2, <http://www.kah.or.kr>)



건강검진 이럴 때 받아!

-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
- 얼굴색이 자주 창백해지고 두통과 현기증이 있는 경우
-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되는 경우
- 계절에 관계없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
-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쉽게 차는 경우
- 복부 불쾌감이나 변비,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 가족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 등의 성인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경우

미니 인터뷰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박준영 사무국장

건강검진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

"배가 수십 년간 바다를 향해하다보면 녹이 슬고 각 부분들이 부실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40세 정도가 되면 무작정 향해가기 보다는 가끔씩 몸의 상태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나이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검진해보고 진단한다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큰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男부럽지 않은 건강검진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 중 하나이다. 때문에 올해같은 짝수 해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만 40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는 무료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인은 종합건강검진과 5대 암검진 등을 일반의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40%정도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녀와 다른 가족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건강을 챙기는 데 소홀하기 쉽다. 지금까지 여성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검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돕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보건복지협)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했으며 모자보건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검진과 진찰을 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남성은 40세부터 암검진을 시작해야하지만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이 일찍 찾아올 수 있어 30세부터 암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정정순 본부장(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은 여성들의 필수적인 정기검진항목으로 유방암, 골밀도, 자궁경부암, 난소암, 우울증검사 등을 꼽는다. 이곳에서는 결혼적령기 건강검진, 갱년기 여성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여성건강의 지킴이가 되고 있다. ☀

문의 _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431-4000~1)

5대암 검진 얼마나 자주 받아야하나?

대상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검사
간암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아파타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유방암	30세 이상 여성	매월	유방자가검진
	35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과 유방 임상진찰 권장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영화, 문화와 상품의 두 얼굴

글 ·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근 영화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읽을 기회가 많았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기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탈옥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마땅히 개봉할 상영관을 찾지 못해 조기 종영되거나, 축소 상영된다는 가십이었다. 또 하나는 요즘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 스타들의 시위에 관한 이야기다. 앞선 기사는 영화라는 문화 예술 매체가 대기업 자본의 논리에 눌러 상영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관점이었고, 뒷 기사는 영화를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기사를 연이어 읽으면서 내 머리 속에는 영화가 과연 '상품'인가, 아니면 '문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영화는 한 사회를 투영하는 거울이자 문화적 산물이다. 굳이 각종 문화 담론을 들추지 않더라도 영화는 사회·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에 나선 영화인들의 주장도 문화를 일개 상품으로 격하시킨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반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가 보내는 메시지는 100%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뜻 동조하거나, 박수를 보낼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 자유무역협정에 반대 혹은 찬성하느냐의 문제, 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영화 산업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에 가장 깊게, 앞장서서 포함됐던 분야다. 그동안 한국 영화인들은 그 산업질서에 몸을 담고 영화 상품을 만들고 돈을 벌어들였다.

한국 영화계가 빛어낸 상품은 이미 기획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Made in KOREA' 영화는 드라마 등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한류를 이끄는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영화계조차 기획-제작-배급의 주요 단계에서 영화를 '문화'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자본이 건설한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돈이 되고, 자신의 돈이 투자된 영화만 골라서 입맛에 맞게 상영한다. 자본의 논리가 통용되는 영화 산업에서 소외받은 영화들은 상영될 공간을 찾지 못한 채, 관객들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 대기업 자본과 몇몇 대형 영화 자본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

유하고 있는 게 한국 영화계의 현실이다. 결국 영화는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그 순수한 예술적 가치와는 별개로 이미 문화의 영역을 넘어 산업의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영화 산업의 경쟁 무대가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화인들은 한국 내에서 대자본 영화가 스크린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천만 관객과 솔한 명작을 만들어 세계로 진출해 왔다.

입장 바꿔 훌륭한 국산 영화를 외국 어느 나라에서 단지 '한국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상영 금지시킨다고 생각해 보라. 너무 비약하는 면도 있지만, 위 문장에서 '영화'라는 단어를 '자동차'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그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 될 지 뻔하다. 나는 오히려 한국영화가 그동안 키워온 힘을 바탕으로 다국적 영화 자본과 한판 붙어도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한판 맞장을 떠야 할 시기가 왔다. 그게 요즘의 국제 경제 질서이자 세계 경제체제에서 상품을 팔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영화라고, 문화 상품이라고 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다.

영화나 핸드폰, 자동차 등 어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핵심은 역시 경쟁력이다. 한국 영화가 살아남는 방법은 질 높은 '상품'이자 '문화'를 만들어내 관객들의 사랑을 얻는 길 밖에 없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내 책상 한구석에 붙어 있는 시 구절이다. 고려 말기의 선승인 나옹 혜근 스님이 쓰신 한시다. 무념과 무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명시다. 원가를 이루기 위해 쫓기는 듯 살고, 성취욕에 떠밀려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순간마다 이 글귀를 곱씹는다. 명예와 금전과 권력과 온갖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힘겨워 하는 현대인들이 마음에 담아둘만 한 시 구절이다.

국인천 굿뉴스

‘도약하라, 비행하라’ Fly Incheon (플라이 인천)



인천의 새로운 상징어가 생겼다. 지난 1월 인천의 도시 브랜드 ‘Fly Incheon’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플라이 인천’은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웅비하는 인천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도약과 비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Fly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11월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선포식을 통해 마케팅 전략 및 브랜드 활용 매뉴얼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Hi 서울’, ‘Dynamic 부산’, ‘It’s 대전’, ‘Happy 수원’, ‘Fast 천안’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802

‘평강의 마을’ 문열어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복지재단이 지난 달 남동구 고잔동에 실비 노인전문 요양 시설인 ‘구세군 남동 평강의 마을’을 개원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 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입소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 1인당 월소득 평균 86만 6천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이며 60명을 정원으로 한다. 이 복지시설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 19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착공했다.

문의 _ 남동구청 사회복지과(453-2543), 구세군 남동 평강의 마을 (437-0991~2)

셋째부터는 보육비 부담 줄어요

2004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 1인당 0세는 22만원, 만 2세 이하는 20만원씩을 매월 지원받는다. 한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직급별로 1인당 매월 8만원~15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순회조력 전문가를 위촉, 파견해 시설특성에 맞는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86억원을 들여 현재 53곳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68곳으로 늘려 414명의 아동을 취원시키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도 기존 23곳에서 5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80

동물사랑방에 들어오세요

길을 잃거나 유기된 애완동물을 관리·분양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동물사랑방’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 애완동물

이 질병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버려지는 수가 매년 증가해 2005년 한 해 동안 4천6백여 마리에 달했다. 이런 유기 동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각 군구별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해 유기동물을 치료하고 분양하는 등 관리해왔다. 이와 함께 ‘동물사랑방(http://pet.incheon.go.kr)’ 홈페이지가 마련돼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보호중일 때 분실 및 습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각 군구 동물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동물정보 소개란과 애완동물 관계법령 및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 등이 소개돼 있다.

문의 _ 시 농정과 440-2997

옹진군 청사 이전



옹진군청이 3월 24일 용현동 새청사로 이전해 준공식을 갖고 행정업무를 시작한다. 면적 14,612㎡의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군 행정기관과 군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야외공연장과 다양한 휴식공간 등이 마련된다. 3월 23일에 개청식 전야제 행사로 신청사 파도광장에서 점등식과 불꽃놀이 행사를 갖고 24일에는 제막행사와 함께 기념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옹진군은 지난 1975년에 건립된 기존 청사가 건물이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문제가 발생하고 청사의 개보수가 어려워 신청사를 건

립해 이전하게 됐다.

문의 _ 옹진군청 883-7035

영화·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요

우리시 곳곳에 드라마와 영화 세트장 등이 마련된 대규모 영상단지가 들어선다.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대 12만평, 영종도 운북동 일대 21만평, 강화군 선원면 연리 일대 13만평 등 3개 지역 총 46만평에 영상단지가 조성된다. 옹진군에는 ‘슬픈연가’와 ‘풀하우스’ 세트장이 있는 시도에 영화세트장과 청소년 위주의 레저시설을 갖춘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다. 영종도에는 각종 공연장을 비롯해 영화세트장, 영화·드라마 제작학교 등을 갖춘 영상단지인 영종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강화군에는 2003년 7월 착공한 영상단지가 오는 8월경 오픈 스튜디오를 선보인다. 또 2010년까지 고려시대 생활상을 재현한 ‘고려촌 영상단지’와 복합영상단지가 조성된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25

전국 최대 어린이과학관 건립

계양구 방축동 계양산자락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과학관이 세워진다. 과학관은 6,500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야외 동·식물원, 체험학습장, 야외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춘 예정이다. 전시관에는 전화기 등 각종 발명품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할 어린이과학관은 약540억원을 투자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23

야외 숲속에서 수업해요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남구 22곳, 중구 7곳 등 102곳에 학교공원이 조성된다. 학교공원은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숲속 야외교실 등으로 꾸며지며 학교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쉼터와 체험

151층 쌍둥이 빌딩, 송도 랜드마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 송도국제도시에 세워질 전망이다. 미국 부동산개발 투자회사인 포트만 그룹과 우리시는 지난 2월 6일 애틀랜타에서 151층 규모의 쌍둥이 타워를 세우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송도지구 6·8공구 192만평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610m높이 인천타워(가칭)는 두바이에서 짓고 있는 160층 빌딩 ‘버즈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또 국내 최고층 건물인 타워팰리스(69층 264m)보다 두배 이상 높고 연면적 16만 평으로 축구장 40개 정도의 규모로 지어진다. 이 빌딩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스카이 브리지’ 3개가 설치돼 두 빌딩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며 호텔, 사무실,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복합건물로 활용된다. 포트만그룹은 현대건설 등 국내 유명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51층 쌍둥이 빌딩이 세워지면 우리시가 동북아 허브도시임은 물론 한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mark)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01~2



인천문화재단소식

문화재단 이전

(재)인천문화재단이 우리은행 구월지점 4층에서 구월동 토지공사(인천본부) 건물 3층으로 이전해 지난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공간협소와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새 사무실 공간 210평 가운데 33평에는 전시공간이 마련되며 문화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눔누리’도 설치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출간

〈한국 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요섭-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문화재단 예술총서 1권으로 발간된다. 지난 우현학술제의 성과를 모은 이 책은 재단의 사업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총서발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1년간 인천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된다. 백서에는 인천의 문화 행정 및 정책, 문화예술 관련 활동 내역과 지원금 현황, 언론 보도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의 _ (재)인천문화재단 455-7100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에 60곳을 비롯해 2010년까지 시내 430개 학교에 도심 휴게공간(Geenschool)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녹지 공간이 확대되고 학생들은 숲속 야외교실을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및 자생식물의 재배 등 자연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733

택시 기본료 1900원으로 인상

지난달 24일부터 택시요금이 17.55% 인상됐다.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으로 올리고 159m를 주행하거나 39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기본요금이 500원 오른 4500원으로 조정됐다. 기존의 추가요금은 주행거리 205m, 50초가 경과할 때마다 200원을 냈지만 168m, 41초에 200원을 내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인상 등 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인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912

실버취업은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정보센터를 5월께 운영한다. 노인취업정보센터는 취업노인의 사후 관리와 미취업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을 관리하는 전담시설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설 예정이다.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각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단체, 각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

동해 추진하게 된다. 노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급대책, 틈새시장 개발 등 노인고용에 대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노인일자리 창출을 최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한 해동안 83억원을 들여 총 6개 분야에 9천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7

인천관광공사 출범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콘텐츠개발을 책임질 인천관광공사(사장 최재근)가 지난 달 16일 남동구 구월동 사옥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은 물론 인천만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국제회의와 이벤트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으로 우리시의 숨은 관광자원들이 개발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관광공사 221-5005

걸어서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중구 항동 연안부두와 북성동 월미도 사이를 잇는 인도교가 건설된다. 연안부두 인근의 소월미도 인천해양경찰서 주변과 월미도 남쪽 끝 해사고교 사이 100m 길이의 인도교를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신평문화거리를 잇는 길이 5.9km의 전차와 월미공원에 케이블카도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2

북한축구팀, 문학경기장에 온다

오는 5월 우리시에서 열리는 동북아 4개국 국제축구대회에 북한 대표팀이 참가한다.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오는 5월25일~28일에 열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동북아 4개국 초청 인천국제축구대회'에 우리나라, 일본, 홍콩, 북한 등 4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경기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겨루게 될 국제축구대회는 우리나라의 인천유나이티드, 일본의 시미즈S-펄스(J리그), 홍콩과 북한의 국가대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유나이티드 FC 423-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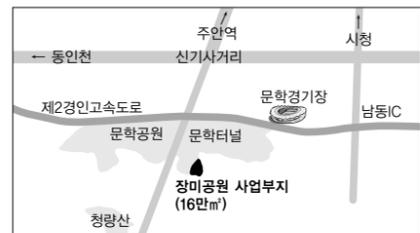
마전~김포공항 버스 신설

서구 마전지구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오는 5월부터 운행한다. 신설되는 노선은 서구 마전지구 검단사거리~서구 원당동~계양구 장기동~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도로~김포공항이며 버스 10대를 투입해 15분 간격으로 하루 77회 운행한다. 또 계양구 동양지구에 시내버스 노선 1개와 남동구 논현 2지구에 노선 5개가 각각 3월 중 추가로 운영된다. 서구 검단지구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신규 노선을 개설하게 됐다. 한편 동양·논현지구에는 역세권과 쇼핑센터, 관공서 및 학교 통행 환승이 용이하도록 노선을 마련했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94

장미향 그윽한 문학공원 조성



문학공원 내 16만㎡에 대규모 장미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우리시의 시화(市花)인 장미를 테마로 꾸며지며 다양한 편의 시설과 휴게시설이 마련된다. 장미원에는 연못(312㎡), 자수화(3천510㎡), 폭포(134㎡), 잔디밭(1천743㎡), 야외회장(970㎡), 휴게소(818㎡), 야외결혼식장(510㎡)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산책로도 함께 조성된다. 전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각종 장미를 모아 전시하고 장미를 이용한 자수 화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쯤 착공해 2010년경 개원할 계획이다. 장미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보통

겨울을 제외하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673

아시안 존, 아시아가 주목한다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 각국의 국가명과 주요 도시명을 부여한 아시안 존(Asian Zone)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단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홍보전략으로 아시아 각국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내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45개 회원국의 국가명과 도시명을 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각각의 거리 이름에 어울리는 주제를 설정해 거리별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특색을 살리고 우리시가 동북아의 허브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문의 _ 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회 440-4194

인공기 휘날리며...

국내 처음으로 송도국제도시 내에 인공기가 상설 계양될 전망이다. 유엔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경제자유구역청 건물 3층에 유엔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

(APCICT)의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는 5월경에 입주할 예정이다. APCICT 62개 회원국의 국기가 계양될 경우 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의 인공기도 함께 계양된다. 한편 APCICT 정식 사무실이 입주하게 될 유엔빌딩(가칭)은 높이 295.3m에 지하 4층, 지상 65층 규모로 2012년께 건립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3983

서인천IC~청라 새 고속도로 건설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 연결하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2008년 개통된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기점(중구 신흥동)은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서인천IC~청라경제자유구역~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6.7km 왕복8차선 고속도로가 생긴다. 이 구간 중 기존 가정오거리 지하차도는 없어지고 지하3층 깊이에 길이 1.7km, 왕복 8차선의 경인지하차도가 생긴다. 또 경인지하차도와 남북으로 교차하는 서곶로 지하차도 640m도 지하 2층 깊이에 설치되며 전체 구간에는 총길이 1,165m의 교량이 10곳에 설치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3

의정소식

선거구 확정으로 의원정수 33명으로 늘어

선거구 조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선거구가 기존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늘어난 선거구는 계양구지역과 서구지역으로 기존 2개였던 선거구가 4개로 조정됨에 따라 26개 선거구에서 30개 선거구로 늘어난 것이다. 조정된 선거구를 보면 계양구의 경우 계양구 제1선거구는 효성1, 2동, 제2선거구는 작전1, 2동, 작전·서운동, 제3선거구는 계산1, 3, 4동, 제4선거구는 계산2동, 계양1, 2동으로 바뀌었으며, 서구의 경우 서구 제1선거구는 검단1, 2, 3동, 제2선거구는 검암·경서, 연

희, 가정1, 2, 3동, 제3선거구는 신현·원창, 석남1, 2, 3동, 제4선거구는 가좌1, 2, 3, 4동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 동구 제1선거구에 포함됐던 송현3동이 동구 2선거구에 편입됐으며, 연수구 제1선거구는 옥련1, 2동으로, 청량동은 동춘3동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됐다. 이밖에 부평구 부개3동은 부평구 제3선거구, 부평1동은 제1선거구, 청천1, 2동은 제4선거구, 산곡3동은 제2선거구로 조정됐다.

자료제공 _ 인천시의회 공보팀 440-6054

멀리 돌아서 가시렵니까? 빠르게 질러 가시렵니까?

삼산동에 살면서 구월동 직장에 다니는 이민정씨는 요즘 아침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다. 지난해 7월 남동구 간석동과 부평구 부평동을 연결하는 만월산터널이 개통된 덕분이다. 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삼산동에서 부평로터리를 거쳐 간석5거리를 지나야 했다. 워낙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언덕도 많아서 눈이나 비가 오면 지각하기 일쑤였다. 아침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50여분. 하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부평에서 만월산터널을 거쳐 간석동으로 나오면 신호 두 세차례만 받으면 직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이 10여분 단축되는 덕분이다. 시간이 단축되고 거리도 줄어들다 보니 한달에 드는 기름값도 훨씬 절약이 된다. 한달이면 보통 20만원 정도가 유류비로 지출됐었는데 터널을 이용하고 난 후로는 12만원 정도로 줄었다. 터널을 이용하는데 하루 왕복 1,400원의 터널 이용요금이 들어가지만 한달이래 봤자 3만원 남짓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천마터널 전경

문학터널 전경

만월터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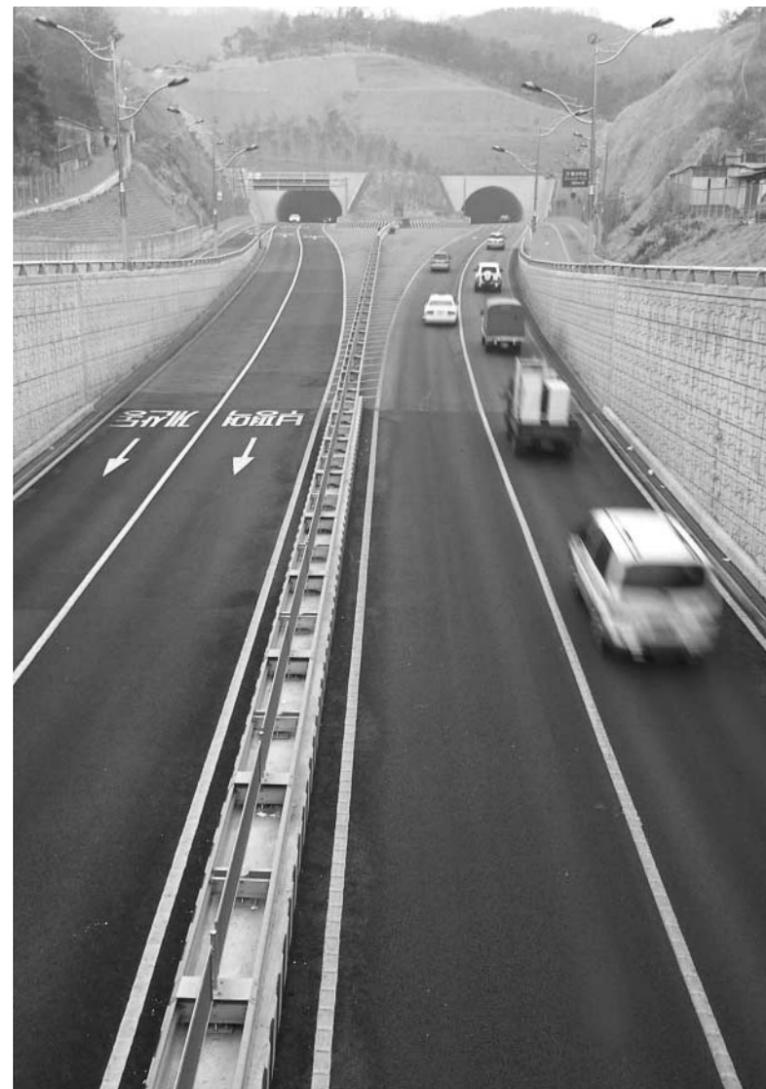
인천시와 민자업자 Win-Win

우리시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차량과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도시 외곽지역이던 곳이 어느새 인구가 신흥 중심가로 발전하기도 하고,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도로 개통이 필요한 곳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나 우리시는 어느 도시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모든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새 도로가 놓이길 바라지만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통해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지역간 주요 연결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구도심 교통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해 구도심지역의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이다.

우리시에 있는 민자 터널은 천마·문학·만월산 터널 등 세 개에 이른다. **천마터널**은 서구 석남동과 부평구 산곡동을 연결한다.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천마개발(주)에서 543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584억원을 들여 지난 2004년 7월 개통했다. 총연장 2천269m의 천마터널은 2차로 쌍굴로 건설됐다.

천마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산곡동에서 석남동으로 가려면 천마로를 이용해야 했다. 기존의 우회도로인 천마로와 천마터널을 통해서 백마장 사거리에서부터 석남 1고가까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결과를 비교해 보자. 천마로는 약 4.1km에 이르는데다 신호등이 13개나 설치돼 있어 평상 시간대의 평균시속이 25km 정도로 4.1km를 진행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됐다. 출퇴근시간대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다. 평균시속은 16km에 미치지 못해 소요시간도 15~20분에 이른다. 하지만 천마터널은 신호등이 2개 뿐인데다 산을 휘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거리도 2.3km에 불과해 약 1.8km가 단축된다. 또한 운행시간도 평상 시간대는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에도 평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





어 시간도 약 8분 이상 절약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어떤 길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대변에 알 수 있다. 유가가 l당 1,450원일 때 배기량 2000cc 연비 10km/l 인 휘발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천마로는 4.1km를 운행하는데 1,426원의 유류비가 든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천마터널을 이용하면 유류비는 334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통행료 7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034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392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여기에 시간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선택은 간단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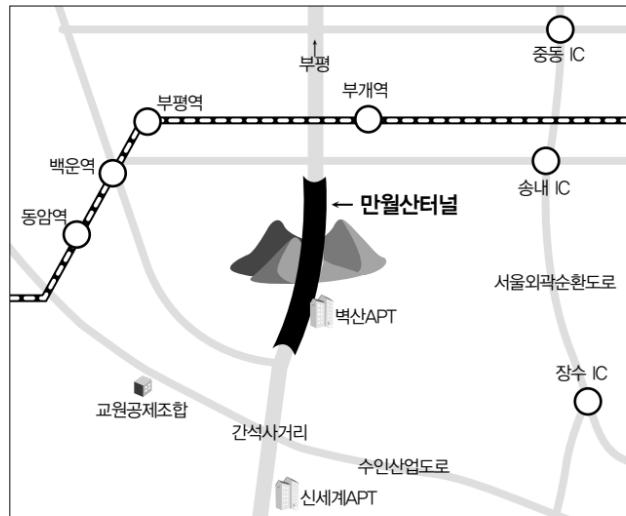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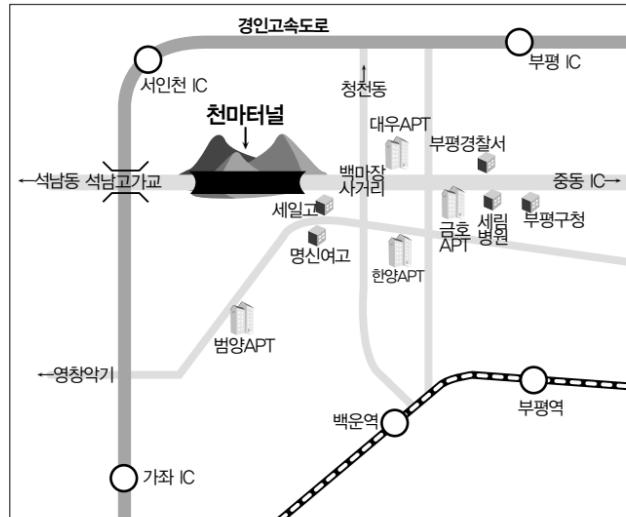
통행료 낸다? 그래도 경제적

세 군데 민자터널 중 만형격인 문학터널은 96년 11월 착공해 지난 2002년 3월 개통됐다. 연수구 청학동과 남구 학익동을 잇는 총 연장 1,450m 상행선 466m, 하행선 416m의 3차선 쌍굴터널이다.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문학터널의 사업비는 총 813억원. 이중 우리시가 110억원을,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문학개발(주)가 703억원을 투자했다.

청학지하차도 옆으로 뚫려있는 문학터널은 입구에 서면 맞은편 출구가 뚝뚝히 내다보이는 짝막한 터널이다. 총 연장길이가 1,450m에 불과하니 그 구간에서만 700원의 통행료를 낸다고 하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문학터널 이용요금이 단지 1,450m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터널입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문학IC를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것 모두 문학터널 개통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문학IC로 진출입하는 차량 모두 문학터널의 혜택을 입고 있는 셈.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더라도 문학터널의 경제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송도에서 주안역까지의 구간을 비교할 경우 거리, 시간, 연료소모 모두 반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수동에서 주안역으로 갈 경우에도 역시 시간과 거리가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해 준다.

지난해에 개통된 만월산터널은 남동구 간석동과 부평구 부평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871m의 3차로 쌍굴 터널이다. 대립컨소시엄이 만월산터널(주)을 만들고 94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우리시가 5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통했다.



터널별 통행요금

구분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요금	경차 400원 / 소형차 700원 / 대형차 1,000원	경차 350원 / 소형차 700원 / 대형차 1,000원	경차 350원 / 소형차 700원 / 대형차 1,000원
요금징수	무인(동전투입)	유인징수	유인징수

우회도로 VS 터널

구간	연수구~주안역		백마정4거리~석남고가		간석4거리~동소정4거리	
	기준도로	문학터널 경유	기준도로	천마터널	기준도로	만월산터널
거리	13km	6km	4.1km	2.3km	4.7km	2.7km
시간	30분	12분	12분	2분	10분	4분
연료	1.5l	0.8l	0.98l	0.23l	0.47l	0.27l
유류비	4,520원	870원	1,450원	334원	1,634원	391원
통행료	-	700	-	700원	-	700원

*유류비는 배기량 2000CC, 연비 10km/l 휘발유 승용차 기준 시내 평균 주행 속도 25km/h, 터널 평균 주행속도는 60km/h로 계산한 것임.

간석4거리의 벽산아파트 앞에서 만월산터널을 이용해 동소정 사거리까지 가는 코스를 비교해 보면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것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상으로는 2km 정도가 단축되고 휘발유는 0.26l, 시간은 6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세금 내고 불편하게? 통행료 내고 편하게!

세 군데 터널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투자했다. 우리시는 용역을 통해 하루 통행량을 계산하고 그에 적절한 통행료를 산정했다. 천마터널의 경우 하루 통행량을 3만대 기준으로 예상해서 수익률을 산출했지만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문학터널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예측통행량의 4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만월산터널 역시 예측통행량의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통행량이 조사되고 있다. 우리시와 민간 사업자는 협약을 통해 기준차량의 90% 수준까지 우리시에서 부족분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3개 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우리시의 예상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터널을 많이 이용



할수록 우리시가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단지 350원, 700원의 통행료가 아깝다고 터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그곳에 쏟아 부을 것인지 아니면 통행료를 감안하더라도 더 경제적이고 쾌적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터널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용할 것인지... 현명한 시민이라면 그 선택은 명확하다. ☀

새로 뚫리는 터널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동춘터널과 청량터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전체 도로 2.06km에 이르는 이 구간은 동춘터널이 160m, 청량터널 630m 길이로 건설 중이다. 이 터널은 2007년 12월 개통예정으로서 문학터널과 이어져 구도심과 연계될 계획이다.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기상대

지구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 한반도. 대륙 어느 곳에서 발원한 바람과 구름, 눈, 비는 한반도에서 마지막 여행을 한 뒤 태평양 바다와 만난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대륙의 체취를 감지하는 곳 인천 기상대. 가깝게는 인천 앞바다, 멀리는 수평선 너머 중국대륙을 향한 채 자유공원 한편에 위치한 인천기상대는 대륙의 날씨 소식을 전국에 전파하는 옛날 봉수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글·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잠시 인연이네...
하늘이
저기 인연구나

흘러가는
저 구름,
그림이다 그림...



내 뺨을 스치는 이 바람도 예측된 것일까?

아이들이 인천기상대를 방문한 날도 메마른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도희(청천초등학교 5년)·도현(3년) 자매와 외사촌인 김상민(효성초 5년), 허정빈(심곡초 1년), 도현의 친구 신해승(청천초 3년) 등 다섯 어린이들의 옷깃을 여미게 한 것은 초속 5.5미터의 북서풍이었다. 이 바람에 실려 온 차가운 공기는 몽골사막을 맴돌다 며칠동안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 인천에 도착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날의 바람도 미리 예측된 것일까? 만약 일기예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비가 언제 올지 몰라 늘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태풍이 닥쳐오는 것도 모른 채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날씨를 기록해둔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둬야 하고, 이웃 나라의 날씨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선 하늘, 땅, 바다, 심지어 지구 밖에서조차 기상관측을 하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미래의 날씨를 맞추는지 알려주기 위해 아이들을 맞은 이는 이경 예보사. 기상에 관한 설명이 막힘없이 줄줄 나오는데다 중간 중간 재밌는 이야기까지 섞어 넣는 품이 분명 전문가다. 마치 입시학원 명강사의 시원스런 강의를 듣는 것 같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이 토끼마냥 귀를 쫑긋 세운다.

“여러분 TV나 라디오에서 예쁜 아나운서가 나와서 일기예보 해주는 장면 많이 봤죠? 그런 일기예보가 나오기까지는

복잡한 과학기술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비, 구름, 바람, 태풍 등 대기현상들을 하늘에서는 인공위성, 땅에서는 기상 레이더 등으로 항상 관측을 하고, 슈퍼컴퓨터와 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해 관측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우량계는 우리나라 측우기

기상을 관측하는 방법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중 학교 건물 앞에 흔히 서있는 백엽상이 이 곳에서도 눈에 띈다. 흰색으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마치 공중에 지어진 강아지 집 같다.

“백엽상 속엔 뭐가 있을까?”고 묻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온도계랑 습도계요.” 기상대에 간다고 미리 공부를 하고 왔는지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

공기가 잘 통하도록 나무 조각 100개를 낙엽처럼 엇갈려 붙여 만든 백엽상의 높이는 보통 1~1.5미터. 온도계는 너무 땅에 붙어있어서도 너무 높이 있어서도 안된다. 딱 사람이 활동하는 정도의 높이여야 한다.

백엽상 안에 있는 건구온도계, 최고온도계, 최저온도계, 자기온도계는 모두 온도를 재는 온도계다. 우리가 보통 ‘현재 기온은 5도’라고 할 때의 온도는 건구온도계에서 측정한다. 공기 중에 포함된 습도 역시 백엽상 안에 있는 통풍 건습계와 모발자기습도계를 사용해 측정한다.

“강수량과 강수량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경 예보사의 이번 질문엔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이슬비, 눈, 싸락눈, 우박 등의 양을 강수량이라 하고, 이 가운데 비의 양만을 강우량이라고 한다. 처음엔 원통형 우량계로 빗물을 받아 양을 측정했지만



요즘엔 자동으로 관측하는 전도형 우량계를 이용한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조선 세종대왕 때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친구들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 예보사의 질문이 점점 어려워진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을까요?”

공기의 무게는 바로 기압이다. 기압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몸으로 느낄 수는 있다. 높은 산에 오르거나 비행기를 탈 때 갑자기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바로 기압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 귀에 있는 고막이 기압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다.

높은 산에서는 밥이 설익는 것도 기압이 낮기 때문. ‘아하,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할 땐 냄비 위에 돌을 얹어 압력을 높이는 것이구나.’ 생활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는 곧 과학이다.

육상 위에 서자 인천의 모습이 한 눈에...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재는 풍향풍속계가 설치된 기상대 옥상으로 올라갔다. 풍향풍속계는 주위건물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땅에서 10미터 정도 높이에 설치된다.

각국의 화물선과 여객선이 정박해있는 인천항과 멀리서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선, 드문드문 보이는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건물 꼭대기에서 맞는 바람은 역시 매섭다. 짧은 치마로 한껏 멋을 낸 도현이에게 친구들이 한마디씩 한다. “그러게 바지 입고 오랬잖아.” 하지만 도현이는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다. 꼬마숙녀에게도 추위 보다 멋이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모양이다. ^^

육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컴퓨터가 가득한 사무실에 모였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구 밖 위성을 통해 날씨를 관측하고, 수십 년 동안 쌓인 통계를 종합해 날씨를 예측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달변의 과학자처럼 설명을 하던 이경 예보사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듯한 말을 한다. “여러분 수학 배우죠? 수학에 선 1 더하기 1은 2지만 날씨는 2가 될 수 없어요. 첨단장비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도 날씨를 100%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답니다.”

날씨는 자연의 변화다. 인공 비와 우박을 만드는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인간이 날씨를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예측도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기상대는 다양한 자료와 경험, 과학이론 등을 바탕으로 전보다 정확도 높은 예측을 할 뿐이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모양과 별자리, 제비나 잠자의 나는 모양, 개구리의 울음소리, 심지어는 허리나 무릎의 통증으로도 날씨를 점쳤다. 날씨에 따라 풍작이나 흉작이나가 결정되는 농경사회였으니 날씨예측은 생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니 역시 과학은 유용하다.

나도 이쁜이 기상캐스터

내친 김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상캐스터가 되어보기로 했다. 여러 곳에서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기압을 연결하는 등압선을 그리고 고기압이나 저기압, 전선의 종류와 위치 등을 표시하면 일기도는 완성된다.

이 예보사의 지시에 따라 다섯 친구들이 용기종기 모여 등압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등압선을 다 그린 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엔 ‘H’, 낮은 곳엔 ‘L’이라고 써 고기압과 저기압을 표시했다.

공기는 언제나 많이 모여 있는 고기압에서 적게 모여 있는 저기압으로 움직인다. 저기압으로 모여든 공기는 하늘로 올

일기예보는 종합과학이란다. 예보관이 되려면 모두 '열공' 하길...



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져 공기 속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구름을 만들어 비나 눈을 내리게 한다. 기상청을 방문한 날도 맑은 하늘이었지만 이경 예보사는 저녁이나 내일쯤 눈이나 비가 퍼부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등압선을 완성하고 고기압, 저기압까지 표시를 한 아이들은 모두 멋진 예보관이 된 듯 자신들의 작품과 기념촬영을 한다. 커다란 슈퍼컴퓨터를 배경으로.

슈퍼컴퓨터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비해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지만 크기 때문에 수퍼가 아니다. 계산속도

가 일반 컴퓨터의 수만 배 이상 빠르기 때문이다. 1초에 2천 2백40억번 기본연산을 한다는 말에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진다. 눈 깜박할 사이에 2천2백40억번이라니 실감은 나지 않지만 상상 이상으로 빠른 모양이다.

그런데 왜 기상대엔 계산속도가 빠른 초고속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걸까? 계산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때를 놓친 일기예보는 아무리 정확해도 쓸모가 없어요. 기상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모아진 수많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복잡한 물리법칙에 의한 수치방정식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기상상태를 예측하는 예상일기도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보통 컴퓨터로는 이렇게 빠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계산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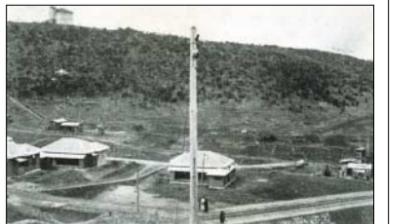
일반 컴퓨터를 달리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중형컴퓨터는 자전거, 대형컴퓨터는 전철이나 자동차, 슈퍼컴퓨터는 비행기에 비유된다. 과학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즈음엔 로켓 수준의 ‘울트라 짱 슈퍼컴퓨터’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날씨에 대한 예측은 많이 정확해졌지만 사람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20년 뒤 도희, 도현, 상민, 해승, 정빈이는 어떤 모습일까. 다섯 친구들 가운데 울트라 짱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과학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 날씨를 예보하는 예보관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

인천 기상대의 역사 옛날에는 대포로 시간을 알렸대요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선박의 드나들이 많아지자 선박들에게 날씨정보를 주기 위해 1886년부터 인천 앞바다에 대한 기상관측이 시작됐다. 1904년 현재 중구청 뒤에 임시 관측사무소가 설치됐으니 인천기상대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 셈이다. 이후 인천기상대는 1948년 국립중앙관상대가 서울로 이전할 때까지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기상업무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시계가 귀했던 시절이라 인천관측소에서 매일 낮 12시마다 대포를 쏘 정오를 알려줬다. 자유공원 일대를 오포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정오에 쏘는 대포’라는 뜻의 ‘午砲’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문과 방송이 거의 없던 시기여서 사람들은 관측소가 옥상에 내거는 깃발을 보고 일기예보를 전달받았다. 예컨대 풍향은 큰 삼각형 깃발로 동풍은 녹색, 북풍은 흰색 등으로 표시했다. 날씨는 사각형 깃발을 사용해 비는 청색, 흐림은 적색을 내걸었다.



못생긴 물텀벙이, 매콤한 맛은 천하일색이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못생긴 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생선이 있다면 단연 '아귀'다. 머리통만 넓적하고 큰데다 몸통과 꼬리가 짧아 별로 먹을 만한 게 없다. 게다가 이 생선이 식탐은 어찌나 많은지 조기나 오징어 같이 맛난 생선을 그 큰 입으로 삼켜서 제 위속에다 고스란히 보관을 했다. 오죽하면 옛날 어부들은 그물에 이 놈이 걸려들면 배를 갈라 위속에 있는 생선만 꺼내거나 재수가 없다고 물에 '텀벙'하고 내던졌을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아귀' 또는 '아구'라고 부르는 이 생선을 인천사람들은 '물텀벙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이렇게 천대받던 생선이 인천에서 맛난 요리로 '개과천선'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1960년대 무렵 생선이 귀해지면서 인천역 부근에 있던 한 선술집에서 물텀벙이 요리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물텀벙이 탕이나 찜은 부둣가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맛난 술안주로, 짠 값에 허기를 채워주는 요깃거리로 사랑을 받게 됐다.

용현동에 있는 '성진물텀벙(883-1771)'은 인천의 물텀벙이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지금으로부터 37년전 창업자인 전병찬씨가 물텀벙이 요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용현동 주변에는 뱃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연안부두가 가까워 물텀벙이 요리를 하는데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



단다. 이렇게 성진물텀벙이 용현동에 가게를 열자 이 주변에 하나 둘 아귀탕 집들이 모여들면서 용현동 물텀벙이거리가 됐다. 한 때는 열 다섯집에 이르던 이 주변의 아귀탕 집이 지금은 일곱집 정도 남아있다.

37년 전통의 성진물텀벙 맛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인천음식 요리조리'에 일일요리사로 도전한 사람은 외식업체 고문이자 대학에서 영양사를 키워내는 겸임교수, 그리고 집에서는 주부이자 아내로 1인 4~5역을 너끈히 해내고 있는 박경숙(45·부평구 산곡동)씨. 지금은 방학이라 좀 한가한 편이라 다행이라는 그녀는 요새 푸드스타일리스트 과정을 배우는데 폭 빠져있을 정도로 뒤편 배우는데 열심이다.

가장 한가할 때라는 시간에 찾았는데도 성진물텀벙에는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몇 테이블 앉아있다. 맛있다고 소문난 집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마련인가 보다. 물텀벙이는 탕으로도 먹고 찜으로도 해서 먹는데 여름에는 화끈한 맛의 찜이, 겨울에는 얼큰한 국물의 탕을 주로 즐기는 것 같다는 것이 성진물텀벙의 매니저 한중택씨의 말이다.

안내를 받아 주방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방 한 칸에 쌓여 있는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죄다

콩나물이다. 성진물텀벙에서 쓰는 콩나물은 특별히 지하 500m에서 암반수로 키워낸 것이다. 때문에 일반 콩나물보다 굵고 키도 큰데다 찜을 해도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매니저 한중택씨가 콩나물을 한 움큼 쥐어 반으로 가르자 명쾌하게 '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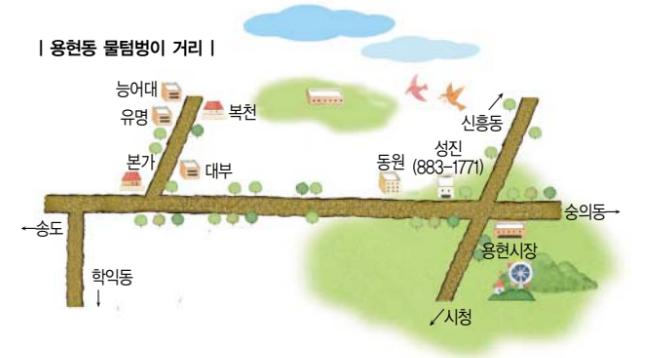
오늘은 성진물텀벙의 '원조' 전병찬씨로부터 직접 요리를 배워 25년 동안 주방을 지켰다는 고정미씨가 맛내기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먼저 고정미씨가 능숙한 솜씨로 아귀를 냄비에 깔고 그 위에 콩나물을 얹었다. 이를 본 박경숙씨가 "생선 요리를 할 때는 콩나물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생선을 놓는 거 아닌가요?"라고 조심스레 묻자 고정미 씨의 시원스런 대답이 돌아온다. "아귀는 그렇게 하면 익지를 않아요. 생선을 냄비 바닥에 깔아야 센불에 잘 익지요."

이어 미나리, 당근, 버섯 등의 야채와 마늘, 생강을 넣고 성진의 비법이 담긴 육수를 부어 10~12분 가량 쪄낸다. 고정미 씨는 "물텀벙이찜은 불 조절을 잘 해야 맛이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센 불에서 끓여줘야 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센 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맛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라며 아쉬워한다.

알맞게 익은 물텀벙이는 물을 따라내고 식용유, 설탕, 소금, 고춧가루, 녹말물을 넣어 재빨리 섞는다. 어찌나 빠른 속도로 섞는지 사진을 찍을 새도, 뭇기를 물어 볼 틈도 없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물텀벙이는 시뻘건 양념을 묻히고

맛난 물텀벙이찜으로 태어난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인 콩나물, 툭 하고 터지는 미더덕, 쫄깃거리는 오소리감투, 거기다 육질이 살아있는 아귀가 어우러져 입이 행복해진다.

오늘의 요리사 박경숙씨는 "학교에서 매일 말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뭘가 부족한 듯했는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물텀벙이찜을 제대로 배우고 가네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도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부는 <굿모닝인천> 편집실 (440-2072)로 연락 주세요.

물텀벙이 맛나게 끓이기

- <재료> 3~4인분 기준
아귀 1600g, 콩나물 1200g, 고춧가루 1국자, 미나리, 파, 마늘, 생강, 당근, 호박, 목이버섯, 오소리감투, 미더덕, 새우, 떡
- <만드는 방법>
- ① 깨끗하게 손질한 아귀를 냄비바닥에 깔고 콩나물과 야채, 마늘을 넣고 육수를 붓는다
 - ② 센불에서 6분, 약불에서 6분 정도 쪄낸다.
 - ③ 냄비에 생긴 물을 따라 버린다.
 - ④ 식용유, 설탕,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재빨리 섞는다.
 - ⑤ 섞을 때는 야채로 생선을 감싸듯 섞고 생선을 건드리지 않아야 살이 부스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재롱잔치에서 찍은 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로로 찍다가 디카를 세워서 동영상을 찍은 바람에 TV화면에 옆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몸을 높히며 보자 할머니까지 동참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보인대요~
윤미숙 (연수구 동춘2동)



로마폼페이에서
우리집 삼남매 제 각각입니다. 로마 화산 도시 폼페이에 여행갔을 때 가이드 분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연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선찬영 (부평구 삼산동)



메밀꽃 필 무렵
동생 아영이와 나 그리고 일등병 허수군인아저씨와 내 친구들. 내 동생 아영이 정말 예쁘죠?
이하영 (서구 가정3동)



해지는 영종대교
만석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뒷 발코니에서는 작약도, 영종대교, 마니산이 보이는 바다에서 해가 지는 풍경이 끝내줍니다. 저희 집 앞 발코니에서는 자유공원, 경인전철이 지나가는 배경으로 해가 뜨는 풍경이 또한 일품입니다. 해질무렵 석양이 너무도 아름다워 아마추어지만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이혜련 (동구 만석동)



빛나는 졸업식
고교시절을 마치는 마지막 날.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한 밀가루폭탄. 칼국수 10인분의 밀가루를 맞았지만 너무 소중한 추억을 남긴 정겨운 우리 학교이기에 행복한 졸업식이었습니다. 인성여고 최강학생회 파이팅!!
장안지 (연수구 연수3동)

그물에 걸린 아이들
딸아이 유치원 소풍날.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노오란 병아리들 속에 웬 빨강? 어디든 튀는 녀석은 있단니까요.
임금선 (서구 가정3동)



← 낯선 여자의 기습뽀뽀 후
재작년 가을, 아이가 집 앞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집 앞을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아이고 그 놈 참 이쁘게 생겼네..." 하시며 저희 아이 볼에 찢하게 뽀뽀를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뻐서 뽀뽀를 해주셨던 건데 아이는 낯선 여자에게 그것도 예상치 못한 기습뽀뽀를 받아서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김희정 (남구 주안4동)

고추가 좀 크죠?
무더운 초여름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 우리집은 아들이 귀한 집이라시며 100일된 손자에게 다음에도 남동생 보라고 큼직한 고추를 손에 쥐어주셨네요.
민경미 (연수구 옥련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자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
92년 1월 9일, 겨울방학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떠난 여행길입니다. 지금은 경제논리에 밀려 사라진 송도역에서 출발해 소래를 거쳐 수원까지 가는 험쾌열차입니다. 기차 앞에서 한껏 몸을 잡고 있는 녀석들도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한 가정의 가정으로 성장했음에니 그때 그 시절을 가끔 떠올리겠죠?
장명숙 (남구 학익동)



올바른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

결투장이 아니다, 휘두르지 말라

서양의 스푼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15세기경에는 왕후나 귀족들은 은으로 스푼을 만들어 재산목록으로 삼기도 했다.

예전에는 칼을 식탁에 한 자루만 놓아두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고기를 썰어 먹었으며 다른 음식들은 손으로 집어먹었으며 왕과 왕비만이 한 자루씩 사용했었다. 지금과 같은 식사도구로 나이프, 포크, 스푼이 한 세트 사용된 것은 18세기말부터이다.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많은 종류의 기물을 접하면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음식이 나오는 순서대로 포크나 나이프를 놓여진 밖에서 안으로 사용하면 무난하다. 오른손으로는 나이프, 왼손으로는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크는 굽은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하고 집게 손가락으로 등을 누르는 것처럼 잡으면 된다.

나이프는 자루를 손바닥 중간 정도의 깊이로 쥐고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집게손가락으로 누르듯 잡으면 된다. 포크는 누르거나 찌를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콩이나 라이스를 먹을 때도 사용되며, 나이프로 자를 필요가 없는 연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해도 괜찮다. 이때 포크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자루를 끼고 아래를 중지로 받쳐 마치 연필을 쥐는 것과 같이 잡는다. 만약 왼손으로 요리를 떠 먹을 수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해도 된다.

스푼을 사용할 때도 포크와 비슷하다. 나이프와 포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고기를 자를 때에는 끝이 서로 직각이 되게 하며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지 말고 팔목 부위만을 움직여 자르는 것이 좋다. 나이프는 사용 후 반드시 칼날이 자기 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식사 중의 포크와 나이프는 접시 양끝에 걸쳐놓거나 접시 위에 서로 교차해서 놓는다. 포크의 경우 접시 위에 놓을 때는 엷어놓는다. 식사가 끝났을 때에는 접시 중앙의 윗부분에 나란히 놓는다. 나이프, 포크, 스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깥쪽부터 나이프, 포크, 스푼의 순으로 가지런히 모아 놓는다.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씹을 때에는 포크와 나이프는 접시 위에 놓도록 하며 나이프의 경우 입안에 직접 넣는 것은 금기시 된다. 마루바닥에 떨어진 나이프나 포크를 주워서는 안 되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양손에 든 나이프와 포크를 쥔 채로 식탁 위에 팔꿈치를 세울 때가 있다. 이러한 광경은 흔히 있는 것이지만 위험하게 보인다. 이야기가 과열되면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든 손을 앞뒤로 뒤흔드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옆의 사람은 무척 당황하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자료제공 _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핑거 볼(Finger Bowl) 사용은 이렇게

물기가 많은 음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찍이 손가락 문화가 발달했지만 서양 음식은 물기가 덜하여 손으로 집어먹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손가락을 씻는 핑거볼이 등장했다. 핑거볼은 대개 예쁜 글라스나 볼에 물이 담겨져 있고 레몬 조각이나 꽃잎이 띄워져 있다. 이것은 과일, 튀긴 베이컨, 양갈비, 가재 등 손으로 먹는 음식이나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작은 카나페류나 빵을 먹기 전후에 손가락을 씻기 위한 것이다. 손가락을 씻을 때는 한손씩 손가락 끝만 조심해서 살짝 씻은 후 냅킨으로 가볍게 닦는다. 혹시 핑거볼의 물을 마신다면, 오~ 테러볼...



황어장터의 3·1만세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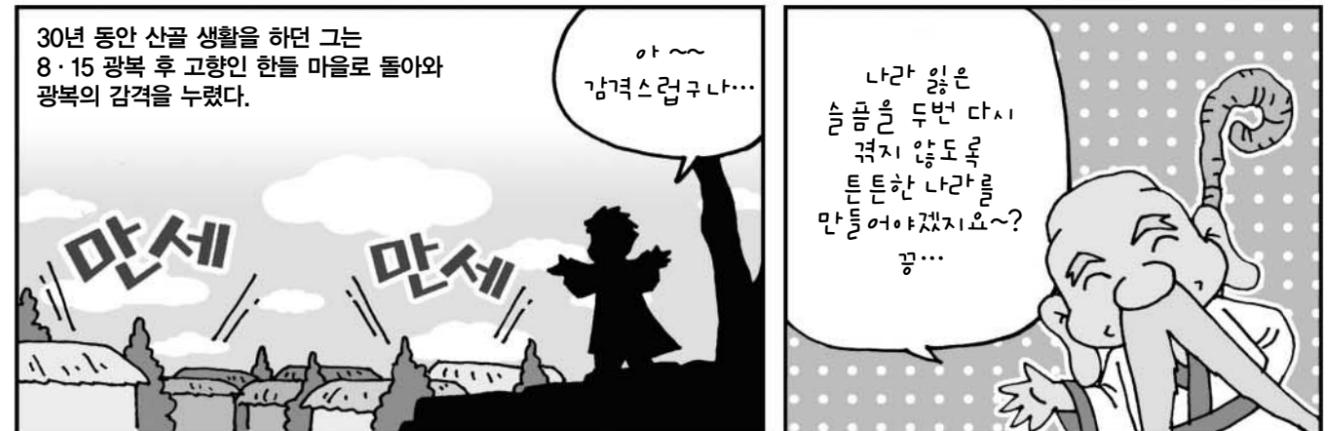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여기서 잠깐



황어장터는 어떤 곳?
 잉어의 산지라 기명하여 그 이름이 붙여진 황어장터는 5일 장으로 조선시대때부터 이름난 소시장이었고 1910년대에는 더욱 확장되어 1일 소거래량이 500~600두, 이용주민이 1,000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장터였다.



부은 게 살 된다

글 · 임세진 (한의박사 현대경희한의의원장 501-2333)

태음인과 소음인이 여러 요인에 의해 장위의 주름이 없어지고 얇아지게 되면, 장위에서 전신의 수액을 순환시키고 경락으로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복부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형기의 불균형이 부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에너지순환이 더더지면서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비만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비만을 해결하기위해 필자의 진료소를 찾는 환자 중에 복부비만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밥을 굶거나 운동을 하면 다른 부위는 금방 아는데 복부만큼은 요지방동이거나,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바지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을 자세히 진찰해 보면 의외로 비만이라기보다는 부종에 가까운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양의학적으로는 체내의 수액이 과잉 저류되는 현상을 부종이라고 하지만 한의학적 개념을 살펴보면 수분의 저류없이 단순히 부어오르는 것을 '부', 수분에 의해 부어오르는 것을 '종'이라고 하여 부와 종을 허실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모든 것을 부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종과 비만의 경계에 있는 듯한 이러한 증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은 게 살된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듯하다.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 소음인과 태음인 즉 순환이 잘 안되는 음인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후박(소음인)과 건물(태음인)을 주제로 처방하여 꾸준히 복용하면 복부에 탄력이 생기고 바지크기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후박과 건물의 약성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후장위(장을 두텁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장의 주름을 회복시켜 장을 두껍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이다.

위와 장은 두껍고 많은 주름이 유지가 되어야한다. 전신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장위자체에서 저장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양명작용이라고 한다.

태음인과 소음인이 여러 요인에 의해 장위의 주름이 없어지고 얇아지게 되면, 장위에서 전신의 수액을 순환시키고 경락으로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복부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형기의 불균형이 부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에너지순환이 더더지면서 지방이 과잉축적되어 비만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의 양기가 많은 소(태양물)와 그렇지 못한 돼지(소음물)의 막창을 비교해보면 두께와 주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누구나 흔히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약재에는 마황이나 마황의 성분인 에페드린이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마황은 한사에 의해 주리가 치밀해지면서 육부에서 피부로의 기화가 안돼서 오는 증상에 쓰는 것으로 비만에 응용하려면 태음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써야하는 것이다.

장위가 얇아져서 오는 복부비만에 마황을 쓰게 되면 오히려 모공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살이 처지거나 가슴이 뛰는 등의 부작용이 올수 있고 부종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진단하고 투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주위의 한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짠돌이 짠순이가 좋다

글 · 이주영 (한국씨티은행 인천개인영업부 씨티골드센터 과장 420-5509)



밝은 햇살만큼 상큼한 첫출발, 새로운 곳에서 멋지게 출발하는 새 출발의 달, 3월이다. 이번 달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 20대를 위한 재테크에 대해 연재하고자 한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혈기왕성한 20대에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잘 짜면 재테크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초년생은 이제 재테크의 시작이므로 목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목돈을 만들려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해야 하는데, 그 일정부분이란 본인의 소득, 용돈,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는 지 아니면 독립하여 생활하는지 등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다. 우선 목돈을 만들어 빨리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월급을 타서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한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월급의 일정부분을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지출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결혼 전은 아무래도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어도 월급의 70% 이상은 저축해야 종자돈 형성이 빠르다.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서 하는 재테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10년, 20년 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청약통장의 가입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세 가지 상품이 있다. 우선 주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일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이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이어야 하며,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50만원이내 자유적립식으로 2년 이상 불입 시 85㎡이하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2년 이상 예치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역과 평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두 번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별 전용면적 25.7㎡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소유 세대주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7년 이상 예치 시 비과세 및 납입금액의 40%, 최고 3백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 세테크에도 요긴하다.

세 번째, 연금저축의 가입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는 장기 상품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는 노후대비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납입금액의 100%,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네 번째, 적립식펀드의 가입이다. 적립식펀드는 요즘 인기 있는 상품으로 2년 이상 불입을 목표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으며, 종자돈 만드는 데 유리한 상품이다. 적립식펀드로 종자돈을 만든 후 목돈으로 또다시 재테크를 해 자산을 점차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 보험의 가입이다. 여기저기 아는 보험회사 설계사의 권유로 이것저것 들다보면 처음에는 푼돈이지만 나중에는 보험료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초년생으로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덜 쓰고 더 많이 저축하며, 나름대로 재테크에 대한 공부와 실천으로 똑똑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터빈으로 가는 길’의 시인 천금순 씨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그날은 기온이 낮아 차가웠다. 바람도 많이 불었다. 발전소는 광활한 매립지 훨씬 안쪽에 있었다. 천금순(千鎭順) 씨? 귀에 그다지 설지 않은 이름인데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며칠 푸근하다가 다시 추워진 날씨 때문일까. 그건 엉뚱하고 이유가 안 된다.

시를 쓰는 여자 동업자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이번에는 시든 갈대들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그것은 조금, 그럴 듯하다는 느낌이 든다. 옛날 청라도, 그 섬을 흔적 없이 안고 있는 이 넓은 매립지, 거기서 말라 죽어버린 가을. 먼지를 쓰고 서 있는 갈대들은 아주 초라하다. 지난 가을에는 풍경이 아주 그럴 듯했었는데, 아, 죽기 전에 도로 담배를 피울까, 어쩔까. 천금순 씨를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을 것이다.

두어 뺨 남짓한 바다는 왜 여태 매립지 근처에서 안달을 하고 있는지. 바람은 왜 그리 적막하게 신 소리를 내고 있는지. 다 철망이 쳐져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한다. 다시 이 여자 시인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그래, 이런데서 생각지도 못한 무슨 사나운 날짐승이나 한 마리 만난다면... 솔개, 솔개가 좋겠어. 그놈이 하늘 높이 떠올라 빙빙 돌면 아아, 어지러워라. 이런 것들이 머리 속에서 모조리 생각을 방해하고 있으니, 천금순 씨를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천금순 씨는 화력발전소에서 청소를 하며 지낼까. 천금순 씨의 「터빈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는 요 근래에 썼다고 했던가. 발전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발전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굳게 닫힌 뒷문에 닿고 말았다.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는 못들을 것이다. 이 거대한 짐승이 아주 심하



게, 몸속에서, 무슨 화산 용암 속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깊은 신음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귀마개를 해야 한다. 나... 정문을 찾으려면 온 길을 다시 되짚어 가야 한다.

늦겨울 오후의 해가 혼자서, 거의 다 말라가는 웅덩이가 장자리를 쓸쓸히 배회하고 있다. 폐가(廢家) 같은 몇 채의 집들을 다시 지나고, 쓰레기 소각장을 돌아 서부와 남부로 갈라졌다는 발전소에 닿는다. 이 둘을 합치면 발전량이 360만 kW로 LNG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라고 하지, 아마. 그러니 발전소라는 녀석이 차마 거대한, 그야말로 하느님이 만든 몸체 큰 괴물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틀린 것이 아니지.

귀마개를 하라는 표지가 붙은 문을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노란 안전선을 따라 천금순 시인을 만나러 간다. 그렇구나. 천금순 시인은 무슨 '반지의 제왕' 세트장 같은 곳에 있는 모양이구나. 머리 속을 뒤흔들고 가슴까지 울렁거리게 하는 굉음의 괴물의 내장을 지나 겨우 천금순 시인을 만난다.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정말 없는 분일까. 어떤 복장일까. 이런 생각조차 사실 끈적끈적한 선입견이다. 그 선입견 밑바닥에는 작은 키, 그리고 목소리도 가늘고 낮은, 이제 머잖아 봄 햇살 속에 머리를 내밀 발독의 냉이처럼 수줍은 그런 타입일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 시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가름한 얼굴만은 맞는데 키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검은 바지에 매력적인 꽃무늬 셔츠를 입은 아주 밝고 명랑한 분인 것이다. 이쪽의 도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예쁜 셔츠를 고른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오십 중반을 넘긴 얼굴 모습이 여간 쾌활하고 환한 것이 아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공연스럽게 청소할 때 입는 작업복을 입힌 것이 영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녹차를 따라주고, 이쪽의 시를 읽은 적이 있노라며, 그리고 그 시가 참 좋았으며, 살짝 추켜 준다. 그리고는 1999년에 낸 『외포리의 봄』과 2003년에 출간한 『두물머리에서』 이 두 권의, 자신의 시집을 내놓는다. 첫 시집 『마흔세 번째 아침』은 이제 남아 있지 않은 모양이다. ‘물안개 자욱한 강물을 본다.’ 세 번째 시집의 표제시(表題詩) 『두물머리에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강물도 어제의 강물이 아님을’ 이 둘째 행이 더 마음을 끈다. 그리고 셋째 행 ‘두물머리여’ 좋다.

눈가 가득히 풍요롭게 웃음을 웃으면서 천금순 씨는 진정 ‘풍요와 봉사’를 위해서 이 일을 택했다는 말을 한다. 풍요! 그리고 봉사! 천 시인에게는 한 달 몇 십만 원이 지상의 풍요에 속하고, 손목의 힘줄이 불거지도록 긴 기름걸레 자루를 밀고 다니는 것이 마음 행복한 봉사인 것이다. 이쪽보다 먼저, 작년에 천 시인을 만나 본 남부발전(주)의 사보 편집실 기자는 천 시인이 월드컵대회 때도 자원 봉사를 했다고 적어

놓았다. 또 보육원, 거리 벽보 제거 같은 사회 봉사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천금순 씨의 일이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할 때까지 터빈 기계실 먼지를 훑어내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갈 테니까 천금순 씨의 뒤를, 천금순 씨의 시처럼 쫓아가 볼까.

발전소 4단계 터빈으로 가는 길
 눈발이 날렸다.
 잔디밭이 소금밭이다.
 땅을 보며 걷던 순금이가
 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보고
 오늘은 구름이 많다고 했다.
 누군가 외쳤다.
 저 꽃 좀 봐
 눈 속에 꽃 피운 매화 한 그루
 뜨거운 소금물과 가스로
 누렇게 죽은 잔디 위로
 새파란 잔디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린 썩과 함께
 새봄은 그렇게 오고 있었다.

(천금순, 「터빈으로 가는 길」 전문)

터빈으로 가는 길. 결국 터빈에게는 가지 못했지만 그 길에 잔디밭, 어린 썩과 함께 오는 봄은 만난 것이다. 여기 발전소 20만 평 땅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는구나. 전기를 일으키느라고 쉬지 않고 소리를 내고 있는 발전소의 마음을, 쫓

덩이들의 마음을 시로 위로해 주는 아주머니. 그리고 보니 기계들이 ‘시인 아주머니’ 하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다. 덩치는 괴물같이 커도 착하고 순진한 기계들. 천금순 시인의 봄이 온다.

이쪽은 어제의 과음이 좀 힘에 겨운데, 그리고 4시쯤에는 고 은(高銀) 시인이 무슨 문학회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를 가야 하는데 문득 발전소 앞 물가 허름한 간이 건물, 식당에서 해물전을 부치자는 것이다. 해물 칼국수 맛도 일품이라고 했던가. 다시 회가 동한다. 시인은 시인의 뱃속을 알아보는 것이다. 허나... 이쪽에서 하는 수 없이 ‘고 은 시인’을 말하자 또 얼른, 몇 해 전 바로 고 은 시인이 써 준 자신의 ‘시집 표지 추천의 말’을 펼쳐 놓는다.

“...부디 내일 더 작두 칼날의 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갇은

정서를 허공 중에 대고 있어 마음 분주하구나. 이 중에 귀 기울이게 하는 몇 편 있어 거기서 멀어져 가는 파도소리를 듣는다. 좋구나.”

그뿐만인가. 구 상(具常) 시인, 그리고 이쪽이 좋아하는 정공채(鄭孔采) 시인의 엽서도 있는 것이다.

소시적 고생을 건너 천금순 씨는 참 잘 살아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흰 솜털 같은 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스크랩북 속에 납작하게 눌러 있는 이름 모를 풀꽃송이들, 말라 버린 나무 잎새의 선명한 잎맥들. 것처럼 수수하게, 진솔하게, 향기롭게, 축복처럼, 봄처럼 살아 온 시인 여자. 날은 추웠어도 천금순 씨네 발전소를 뒤에 두고, 돌아 나오는 이쪽 남자 들은 마음이 제법 푸근했다. ☀





밝고 건강한 인생 설계

누구나 한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든 짧은 다이어트의 경험이 있으리라 본다. 체중이 오버되어 받는 스트레스는 심지어 우울증까지 초래한다고 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모 신문 기사에서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비만은 건강의 적이기도 하지만 외모 상으로도 도통 품이 나질 않으니 너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다. 요즘 세상에는 '얼짱'도 중요하지만 '몸짱' 또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세태가 되어서 그런지

연초에는 누구나 굳은 결심으로 실행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말이 '다이어트' 지 그게 그리 쉬운 일이던가.

우리네 인생살이에 먹는 즐거움 또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삼욕(三欲)의 하나라고 아니 했던가! 아는 어떤 이는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다이어트 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되묻곤 한다. 그것도 억지로는 안되는 것인가 보다.

본인 또한 다이어트 시작 한지가 근 9개월 쯤 접어드는데 한마디로 말해 그야말로 고역이다. 특히 야심한 시간에 긴긴 겨울밤 족발, 보쌈, 순대 등등 그 유혹은 차리리 고문에 가까운 듯 싶다.

하지만 그 이면에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들을 되찾아가며 전신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건강회복, 기분상쾌, 자신감 충만 이라는 반대급부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한 번쯤 '다이어트'에 도전하길 진심으로 권유해 본다. 그리하여 밝고 건강한 인생을 설계해 보라고...

조경호 (연수구 연수1동)

꼭 빼야 하느니라

나는 몸무게 60kg 이 넘는 뚱뚱한 아줌마이기에 동네 남자친구에게 평소 농담인 듯한 놀림을 많이 듣고 있다. 하루는 너는 배가 나와서 너무 탐스럽다며 그 배를 중점으로 무엇 이든 해보라며 놀리는 것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웃음으로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사람들 많은 데서 꺼리길 것 없이 해대는 그 친구가 싫고 야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짐을 하게 됐다.

밥을 굵고라도 다이어트를 해서 꼭 예전의 날씬한 몸매

를 찾고 말겠다고.

사실 처음부터 내가 뚱뚱했던 것은 아니었다. 꽃다운 처녀시절에는 40kg 이 넘지 않는 날씬하고 예쁜 몸매였는데 결혼생활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져 갖가지 약을 복용하고부터 왠지 모르게 살이 찌고 말았다.

요즘은 이웃에 사시는 이모님의 권유로 호박다이어트 중이다. 늙은 호박을 깎지 않고 껍질째 잘라서 씨를 빼고 물에 푹 삶아서 자주 먹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 아랫배가 쑥 빠지면서 날씬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모도 그 다이어트 방법으로 누구보다 효과를 톡톡히 보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며칠 전부터 늙은 호박을 삶아 먹으며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호박 맛도 그런대로 단맛이 있어서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좋은 것 같다. 아무쪼록 이 방법으로 예전의 날씬한 몸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명기 (강화군 교동면)

뚱보면 어때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딸 수민이는 엄마인 나와 체중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비만이다. 한참 외모에 관심 갖고 예민할 시기여 서인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의욕도 없어서 생각다 못해 지난 여름방학 때 교육청에서 주최한 튼튼이 영양 캠프에 보냈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듯이 늘 기름지고 단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만 좋아하더니 이 곳에 다녀오고부터는 많이 달라졌다. 어떤 음식 한 조각에 얼마의 칼로리가 있다느니 탄산음료는 왜 안 좋다느니 엄마인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더니 실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고 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많이 느낀 모양이었다.

요즘은 땀을 뻘뻘 흘리며 15층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고 리모컨도 안 쓰고 텔레비전 채널을 직접 가서 바꾸고, 밥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고 양치질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끔 거실을 닦는다. 생각보다 몇 kg 빠지지 않아 실망도 하고 아직도 노력중이지만 예전보다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대견스럽다. "뚱보면 어때, 난 나야!" 하면서 열심히 살 빼기에 노력중인 딸아이에게 화이팅을 외쳐본다.

조혜미 (부평구 삼산동)



군인정신으로 살빼기 대작전

군입대 전에 내 몸무게는 80Kg이었다. 군대에 가면 활동량이 많아지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이었다. 입대한 달 후엔 90Kg까지 치솟았다.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내 불어난 체중 때문에 군생활이 무척 고단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난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밥을 조금씩 줄어가면서 몸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 상병을 달고 나서부터는 자유시간도 많아져서 웨이트트레이닝도 할 수 있었고, 운동장을 수십 바퀴씩 뛰는 달리기도 했다. 정해놓은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니 몸무게가 75Kg까지 줄어들었고 병장을 달고 나서는 70Kg까지 줄일 수 있었다. 지금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한층 좋아졌기 때문에 난 아주 만족한다. 무조건 음식을 안 먹고 비싼 헬스장에 다닌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가볍게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생각이 든다. 방금 나의 몸무게를 재봤는데 69Kg이다. 오늘밤에도 달을 보면서 줄넘기를 할 생각이다.

우상민 (연수구 동춘동)

다이어트 3·3·3 운동으로...

저는 다이어트하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살은 그대로고 요요현상 때문에 포기하다시피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녁에 들어와서 제 다리를 보더니 코끼리 다리라고 딸아이에게 "엄마 다리는 코끼리 다리"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TV에서 다이어트 강의를 나오더군요. 실천을 해본 결과 지금은 2주정도 지나 3kg 빠졌어요. 제가 결혼전에는 키 158cm에 몸무게 43kg였는데 결혼 2년차인



다음달 글의 테마는 '파티'

다음달 테마는 '파티'입니다. 파티에 얽힌 재미있는 글이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창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지금은 158cm에 52kg가 되었어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3kg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낮에는 아이가 있어서 같이 간식을 먹고 낮잠도 자고 해서 몸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지금은 3.3.3 운동법으로 옛날의 몸무게를 찾으려고 노력중입니다. 3.3.3 운동이란 30분이상... 일주일에 세번이상... 3개월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무게를 하루에도 열번 이상씩 재어보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재었어요. 그러니깐 몸무게 줄어드는게 눈에 띄면서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식사는 아침은 무슨일이 있어도 꼭 먹구요, 11시나 12시쯤 간식으로 과일먹고 3시쯤 점심먹고 저녁은 안먹었는데 배고파서 안되겠다 싶으면 두유나 두부, 오이를 먹곤합니다.

비만은 여자의 적! 열심히 해서 올 봄에는 예쁜 미니스커트도 입어볼까 합니다. 우리 예쁜 딸 채은이와 같이요... ^^

김민영 (서구 당하동)

다이어트엔 등산이 최고!!

난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선수였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 몸무게가 금방 늘어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몸무게가 65kg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무려 77kg가 됐다. 운동이 싫어서 운동을 그만 두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다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달리는 건 죽어도 싫어서 등산을 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의 산을 다 올랐다.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치악산, 속리산 등등... 다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가지 못했지만 말이다.

산을 타면 기분도 좋아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체중도 줄일 수 있다. 난 다이어트에 목말라하는 여자들에게 등산을 추천해 주고 싶다. 다리 굵어져서 싫다고들 하지만 등산만큼 좋은 게 또 없는 거 같다. 지금 내 몸무게는 다시 60kg 대로 내려갔다. 한창 몸이 비대해졌을 땐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하다. 앞으로도 다이어트를 위해 산을 또 오를 것이다.

홍용만 (경기도 부천시)

가족방문상담 · 가족치료 안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까? 감추어진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등 숨기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가족 내 갈등에 의해 가족의 문제는 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는 가족 내 상호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고자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를 실시합니다.

- 기간 : 2월~10월
 - 대상
 - 가족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가족
 - 가족치료가 필요한 가족 (알콜중독, 가정폭력, 성격·가치관의 차이, 심각한 부부불화, 우울증, 정신분열 등 가족원의 정신병리적 문제)
 - 방법
 - 가족방문상담 : 전문상담원 직접 방문
 - 가족 치료 : 심리성격검사 및 면접상담·치료
 - 시간 : 가족심리치료 (월요일 오후 5시~9시, 화요일 오후 5시~8시) 신경정신치료 (목요일 오후 3시~6시)
 - 내용
 - 가족상담을 통한 가족 내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 회복
 - 가족상담 결과에 따른 가족 심리 및 신경정신 치료
 - 비용 : 무료
 - 접수방법 : 전화 및 내방
- 접수 및 문의 _ 시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 구성 : 학부모 · 교원 · 지역위원
 - 위원수 : 학생수 기준 5인 ~ 15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 위원 자격
 - 학부모위원 : 해당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 교원 위원 : 해당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 위원 : 인천거주자로서 지역인사, 교육행정자, 사업가 등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출기간 : 3월 3일(금) ~ 20일(월)까지 학교에서 선출
 - 선출절차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 등록 → 투표실시 → 당선 공고
 - 임기 : 4월 1일 ~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 권한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가진

- 의무 : 회의 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 문의 _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
 (420-8230~1 http://www.ice.go.kr)

3월 무료검진 안내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 기간 및 장소
 - 3월 27일(월)~30일(목)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3층 한방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 검진명 : 금연침
 - 검진인원 : 120명
- 문의 _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무료 훈련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으로 사무자동화 관련 취업·창업교육과 제빵관련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을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실시합니다.

- 〈교육명 : 사무자동화〉
- 기간 : 3월 20일 ~ 8월 19일
 - 시간 : 오후 2시 ~ 5시 50분 (1일 4시간)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부터 OA과정 이론·실기, 워드프로세서, 엑셀 자격증 및 각종 취업·창업교육
- 〈교육명 : 제과제빵기능사〉
- 기간 : 3월 6일 ~ 8월 5일
 - 시간 : 오후 1시 ~ 5시 50분 (1일 5시간)
 - 교육내용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대비 각종 제과, 제빵 실습 및 데코레이션 응용, 취업 및 창업교육
 - 훈련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1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 고령자, 자영업자

질병의 고통,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 건강보험이 만들어 갑니다

구분	건강보험	민간보험
보험혜택범위	대부분 질병보장	계약에 따른 일부보장
보험지급율	189%(100원 내고 189원 혜택)	61%(100원 내고 60원 혜택)
사업운영비	4.8%	30%(광고비, 모집인수당 등)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비진학청소년(중·고등학교 졸업/중퇴자) 등
- 접수안내 : 센터에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훈련대상자별 구비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1통, 구직등록필증, 사진2장, 신분증, 우체국통장,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모자가정증명서 등)
 문의 _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428-6696~7)

문학경기장 자전거교실 수강생 모집

- 문학경기장에서는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2006년도 자전거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수강료 : 초급 20,000원 / 중급 30,000원
 - 교육인원 : 매기 30명(선착순)
 - 자전거교실 일정
 - 교육일정 : 3.6~3.17 / 4.3~4.14 / 5.1~5.12 / 5.29~6.9 / 6.26~7.7 / 8.28~9.8 / 9.25~10.13 / 10.30~11.10
 - 교육시간 : 월~금, 오전 10시~12시
 - 기간 : 주 5일 2주간 총 10일 교육
 - 인원 : 30명
 - 특기사항
 - 문학자전거교실에서는 초·중급과정을 배울수 있는 자전거와 수강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용 안전 헬멧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중급자과정은 초급자과정 이수 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적정 인원에 미달될 시에는 교육 일정이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_ 문학경기장관리사업소
 (456-3020, 3026 http://www.munha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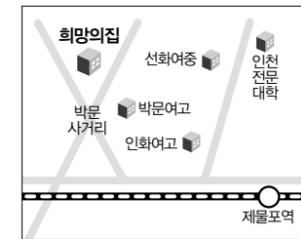
UAA 입학설명회 열립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는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5일(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UAA(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UAA 관계자가 직접 방언하여 학교소개 및 인천출신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에 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며 아울러 새로 바뀐 TOEFL제도(Internet-based Testing)에 대해서도 한미교육위원단 공보관이 직접 소개해 주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면 경품추첨도 있을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편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국제감각을 향상시키고,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민자원봉사자 제도'를 기획하고 2월 말부터 모집합니다. 활동내용은 홈스테이, 홈비즈니스, 통·번역, 문화소개, 교육·강좌, 행사지원 등이며, 모집은 수시접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에

게는 청소년 교류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_ 시 국제교류센터 (441-8161, www.icec.or.kr)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이 운영됩니다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인 희망의 집이 연중 운영됩니다

- 이용대상
 - 동구관내 거주자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의 치매환자
 - 지팡이나 신체보장구로 거동이 가능한 치매어르신

-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고 시설적용 및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증치매환자
 - 내 용
 - 주간보호센터 이용 : 낮 동안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재활서비스
 - 방문보건서비스 내용 :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재가 치매노인은 방문서비스 제공
 - 이용절차 : 보건소 내소 → 가족상담 → 이용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후 통보
 - 이용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그 외 일반인은 실비 부담 : 월 8만원
 - 운영기간 : 연중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차량 운행
- 문의 _ 동구보건소 방문보건팀 (770-5740)

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제도 안내

1. 선거범죄를 신고한 때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보호되며 인적사항은 공개·보도되지 않습니다.
 -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합니다.
 - 5대 선거범죄란?
 - 공천자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 제공행위
 - 비방·흑색선전행위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행위
 - 대규모의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행위
 2.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 이익을 후보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신고 및 제보 _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425-3939 www.icec.go.kr)

국악문화학교 제13기 수강생 모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인천예총 국악회관의 국악문화학교에 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제1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3월 13일(월) ~ 6월 3일(토)
- 접수기간 : 2월 6일부터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전화 접수
- 강좌과목 : 가야금, 민요·장구, 풍물, 한국무용, 판소리, 모듬북, 해금, 대금, 단소
- 기타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게는 무료강습 (단 인원제한)

문의 _ 인천국악회관
(876-8364~5, 875-4644 www.kukakhall.com)

YMCA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인천 YMCA에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내일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대상
학습향상	영재교실, 방과후교실, 우등생교실	초등학생
외국어	YMCA English School, 중국어 하오뽕교실, 영어일기쓰기	유아~ 초등학생
취미문화	글쓰기논술, 영재미술, 에디슨과학, 수학가베, 영어발레	
토요문화학교	로봇교실, 창의력논술교실, 뮤지컬잉글리쉬	
음악	요들송, 하모니카, 오카리나, 소년소녀합창단	
사회체육	돌핀어린이수영단, 소년축구단, 인라인스케이트, 발달장애체육교실	일반성인
YMCA체험학교	반딧불교실, 우리문화·역사탐방교실	
성인강좌	비주공예, 인형수공예, 퀼트, 토피어리, 풍선공예, 요가, 차잉댄스, 댄스스포츠	
전문지도자 자격증과정	한우리독서지도사, 가베전문지도사	

문의 _ 인천 YMCA (431-8161, www.icymca.or.kr)

인천여성의광장 2006년 제2기 수강생 모집

우리시 여성의광장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우선모집 : 2월 27일(월)~3월 10일(금) 방문접수
 - 해당교육 : 전문직업교육(IT장기교육포함)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혜택 : 우선모집회부여, 수강료 무료 (단,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재료비 등)은 여성의광장으로 문의하세요)
- 일반모집
 - IT장기교육(위탁교육) : 2월 20일~3월 21일 인터넷수강신청자에 한하여 3월 23일(10시)면접실시후 3월 27일 합격자발표
 - 일반교육 : 3월 13일~3월 14일 인터넷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3월 16일 컴퓨터추첨을 통한 홈페이지 게시
 - 대상 : 인천시 거주 시민 (단, 체육과정은 남성 제외)
 - 접수방법 : 3월 13일~3월 14일 인터넷수강신청 → 3월 16일 컴퓨터추첨을 통한 홈페이지 게시 → 3월 20일까지 수강료 납부 → 수강등록 완료
- 교육기간 : 4월 7일~6월 30일 (수강료 : 6만원) 단, IT장기교육 4월 3일~11월 30일 (수강료 : 16만원)



분야	교육 프로그램
IT장기교육(위탁교육)	• 교육과목 : 스페셜웹디자인마스터, 전자상거래웹사이트구축, 디지털영상제작, 플래시스페셜리스트 • 교육시간 : 4월 3일~9월 29일 (월~금, 10시~13시) / 10월 2일~11월 30일 (월~금, 10시~17시)
전문직업교육	웹디자인기반, 플래쉬애니메이션제작, 홈페이지와소핑몰제작, 컴퓨터활용능력(국가자격증), 컴퓨터 OA, 워드프로세서(국가자격증), 컴퓨터 그래픽응용기능사(국가자격증), 토익, 영어회화첫걸음, JPT, 공인중개사(국가자격증), 부동산재테크(공·경매포함), 화훼장식기능사(국가자격증), 건강다이아트관리사(민간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국가자격증), 신나는상차림, 독서지도사(독서, 글쓰기)
문화·체육·교양교육	디지털사진교실, 생활건강식, 스케치교실, 서양화교실, 생활원예, 웰빙기공요가, 패즈댄스, 발리댄스, 태보다이아트댄스, 헬스
무료 교육	나에게로의여행(성평등한 인간관계와 인생설계), 전통예절과 다도

문의 _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 (815-7101~3 www.incheonwp.go.kr)

청소년의 문화? 청소년의 자유!

글·윤슬아 (인화여고 1학년 · 제6기 청소년웹진 MOO 기자)



청소년 댄스 교복 페스티벌이 열린 것은 2월 3일 2시 롯데백화점 7층에 위치한 샷데홀이었습니다. 인천 청소년웹진 MOO의 학생기자라는 자격으로 댄스 교복 페스티벌의 청소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금까지 걸린 이 경연대회에서 내손으로 1,2,3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돌 스타를 추종하다시피 하는 소위 '중딩'에게 무슨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등 줄기에 땀이 배일 정도로 꼼꼼하게 메모하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무대를 위해 수 개월간 합숙하며 연습을 했을 참가자들을 생각하니 절대로 쉬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는 기술성 심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은 '멋진 춤'이라는 게 남다른 거창한 표현을 붙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댄스와 관객 모두가 함께 '음악&춤'이라는 매개체에 단단히 묶여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장 2시간. 숨 가쁜 공연의 막을 내리고 각 심사표에 기록된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냈습니다. 긴 여정의 결과로 일등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관계자 분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롯데홀의 현란한 조명을 빠져나와 햇빛을 보았을 때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몽롱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빠 점수를 적어내느라 정신이 없어 공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상금을 받고서 기쁨

과 감격의 포옹을 함께 나누는 댄서들을 보고 있자니 팬스레 마음이 뿌듯해져왔습니다.

청소년만의 독점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음악과 이들의 평생지기 친구 DANCE.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춤을 추는 것을 날라리들의 유희 문화쯤으로 받아들이는 어른들의 잘못된 선입견들과 이런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춤'의 은둔생활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아직 까지도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죠. 왜 어른들은 도대체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소유물이자 책상 앞에 앉아 붙어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친구들과 만나서 떡볶이 먹고, 영화 보고, 노래방 가는 것 외에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문화 콘텐츠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이나 공연,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이 청소년의 가난한 주머니에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열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나라에서도 아낌없는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턱없이 부족한 문화 시설물도 조금씩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른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소년만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전제조건 또한 필수항목이 되겠죠. 아무쪼록 제가 어른이 되기전에 청소년 문화가 널리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파이더맨의 곡예

그는 '왕의 남자' 남사당패가 아니다.
 관객의 박수가 들리지 않지만 그는 매일 줄을 탄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곡예하듯 몇 시간이고 줄에 매달린다.
 '축하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전화선을 통해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는 보람으로
 그는 오늘도 가느다란 줄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생일케익도 떡이젠 떡으로!



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뵙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